

2005 7 월 호 제364호

주부교실



사단법인 전국주부교실중앙회
NATIONAL COUNCIL OF HOMEMAKERS' CLASSES

본회는
주부의 사회성을
개발하고,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가정과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주부에게 부하된 사명과
역할을 체득 실천함에
있어 주부중심,
지역중심의 조직 및
활동전개로 새 주부상을
정립해 나간다.



월간 주부교실 7월호

발행일 : 2005. 7. 20

등록일 : 1972. 8. 31

등록번호 : 라-1616호

✱발행 : 사단법인전국주부교실중앙회
발행인 : 이윤자
편집인 : 김태현
주 소 : 서울시 중구 충무로 5가 19-3
전 화 : 2265-3627, 3628, 0637
2266-5870, 2273-6300, 2485
F A X : 2279-9341
<http://www.nchc.or.kr>

✱인쇄 : (주)헤럴드미디어
대표 홍정옥

비매품

주부교실

2005
통권 제364호 7

생각해봅시다	4	한국에서 중년으로 살아가기 / 김태현
제안회의	6	효율적인 주택 물 관리와 수질향상을 위한 제안회의
실태조사	10	공동주택 저수조관리 및 주민참여 실태조사
소비자지식	13	식중독 예방요령 알아두세요
고발사례	14	소비자의 소리 /곽정자
가족사랑캠프	16	3대가 함께하는 가족사랑캠프
알아봅시다	18	에어컨 구입 아직도 망설여지시나요?
생활정보	20	7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소비자뉴스	22	‘짜퉁’ AS센터 주의하세요
식품뉴스	24	음료분말서 췌당어리 검출, 업체 ‘배짱 판매’
여성뉴스	25	여성 투명 슬리퍼 오래 신으면 척추에 나쁠 수도
북한뉴스	28	북한의 음식
생활의 지혜	29	장마철, 집안의 습기와 곰팡이를 제거하자
공트	30	강사와 어느 부부 이야기 / 노수민
음식이야기	32	색깔로 먹는다-화이트푸드
가정요리	34	한여름의 열기를 시원한 냉국과 함께
금융가이드	36	내 재산은 내 노후를 위해 쓰자! - ‘역모기지론’
건강가이드	37	아름답고 건강한 노년의 삶을 위한 식생활 지침
문화산책	38	이 달의 읽을 만한 책
지부소식	39	전국 16개 시·도 지부 및 234개 시·군·구 지회 소식
주부교실게시판	50	주부대학 방학 및 광진여성인력개발센터 프로그램 안내

〈표지사진 : 3대가 함께하는 가족사랑캠프(중앙회, 05. 6. 24~26), 제10회 환경그림 그리기 대회(전라남도지부, 05. 6. 18)〉



김 태 현
성신여대 가족건강복지센터 소장

한국에서 중년으로 살아가기

한집에 거주하는 가족 수는 기껏해야 2-6명이다. 그리 많지 않은 숫자지만 그들이 빚어내는 관계의 종류는 참으로 많다. 수백 명이 모인 회사 집단보다도 더 복잡한 양상을 드러낼 때도 있다. 나뭇잎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수히 많은 선들이 그물처럼 얽혀있는데 그 모습이 한국가족과 비슷하다. 한국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회보다도 3세대가 함께 얽혀 사는 가족의 수가 가장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히 서구식의 핵가족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이는 한국의 가족문화를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의 문제를 풀기는 커녕 더 엉키게 만들 수도 있다.

우리 나라 중년가족은 위에서 누르는 노부모 세대와 밑에서 치받는 자녀 세대에 끼어서 허덕허덕하면서 살아가는 샌드위치 세대가 유난히 많은 사회이다. 이들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자.

상담실에 종종 문을 두드리는 젊은 주부 내담자 중에는 시댁과의 갈등이 심해져서 이것이

그들의 부부와 자녀에게 영향을 주어 가족 전체가 휘청거리는 상황을 하소연하였다. 내담자의 부부는 결혼 전부터 열정적으로 사랑해 왔고 자녀에게 헌신적으로 정성을 기울이고 있어서 외향적으로는 안정되어 보이는데 이 주부는 정신적으로 지칠 대로 지치고 신경이 날카로워 있었다. 내담자는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어 이러다가는 시들시들 죽을 것 같아서 겁난다고 까지 말한다. 시댁과의 갈등으로 부부관계가 점점 악화되고 있고 자녀들도 풀이 죽어있다고 한숨을 쉰다. 결혼 전에는 부부가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시댁과의 문제는 그들에게 큰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다고 한다. 이렇게 고부간의 갈등으로 부부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가족전체의 인간관계가 흔들리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부부관계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들의 자녀가 불안정하게 되고 학교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학교 생활에도 부적응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비슷한 어떤 사례에서도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성적이 자꾸 떨어지기 시작하여 상담교사와 상담을 해본 결과 고부간의 갈등으로 집안에서 불화가 자주 일어나고 조부모와 부모가 언성이 자주 높아지니까 이를 목격한 자녀가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집밖에서 빙빙 걸돌다가 가족 문제를 가진 유사한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학교 생활에는 흥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3세대가 살아가야 하는 가족이 많은 한국 가족은 3세대가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모색하지 않으면 가족이 파괴될 수도 있다. 이러한 가족은 고부간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지내게 됨으로 언제 또다시 회오리바람이 몰아칠지 모른다. 3세대가 공동체성을 회복해서 어우러져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보자.

우선 서로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 태도가 다른 3세대가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는 방법을 터득해 가야한다. 노부모들은 대개 의존성이 커지고 옛것을 고집하고 자녀부부의 생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그들이 전통사회에서 살아온 분들이라 대부분의 노인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라 생각하고 이해해야 한다. 또한 젊은 자녀부부들은 자유롭고 풍요롭고 개인주의 사고를 가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또한 젊은이들이 살아온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의 영향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부모 세대는 이러한 자녀 세대의 생활 환경을 이해하도록 한다.

노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를, 자녀 세대는 노

부모 세대를 서로가 살아온 생활 배경의 차이를 이해하려는 의식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타협해 나가야 한다. 세대간의 타협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솔직하게 직접적으로 대화하면서 협상하고 설득하도록 해야한다.

셋째는 중년세대의 남성의 역할이 중요하다. 옛말에 '안방에 가면 시어미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다'는 말이 있듯이 어머니와 아내의 이야기를 쫓대 없이 듣고 마는 남성들이 많다. 이런 무관심한 태도를 현대 남성들은 바꾸어야 한다. 어머니가 가장 믿는 아들인 동시에 아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은 야구 시합의 코치처럼 중립적 입장에서 양쪽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네째 각자의 생활 세계를 가지도록 해야한다. 노부와 젊은 부부들은 각자의 취미 생활을 개발하여 즐기되 상대방의 취미생활을 존중한다.

중년세대는 노부모를 부양해야하고 자녀를 양육해야하는 힘든 위치에 있는 샌드위치 세대이다. 이들이 양쪽에서 협공을 받으면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지혜가 중요하다.

한국의 가족 내 인간관계는 부부만이 아니라 노부모 특히 시부모까지 포함한 인간관계를 사려 깊게 생각하고 배려해야 한다. 이러한 가족 분위기에서 성장한 자녀들만이 안정되게 생활하면서 그들의 능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다. ■

효율적인 주택 물 관리와 수질향상을 위한 제안회의

현재 수도당국에서는 각 가정에 공급되는 수도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회는 7월 5일 본회 4층 강당에서 수질보전 및 문 문제 해결을 위한 발전적 방안 마련과 주민 실천 의식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회의를 개최했다. 제안회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발제> 최 승 일 (고려대학 환경공학교수)

<토론> 사회자: 최 승 일

- 최 명 렬 (본회 소비자보호국장)
- 이 상 홍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장치과장)

- 김 진 엽 (한국급수장치협회 회장)
- 백 명 수 (수도물 시민회의 사무국장)

정부는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강화, 주민은 상수관 관리와 청소로 오염 예방

최 승 일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수도물 정책은 원수를 취수하여 수처리하는 정수처리 과정에서의 수질을

어떻게 향상시키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최종 처리수의 수질이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일반 국민들에게 양질의 수도물이 공급되어지도록 노력해왔으며 이 부분에 있어서 일정부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비자들은 수도물의 수질에 불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정수장에서 공급되어지는 수도물이 분배시스템에서 오염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같은 고밀도 주택단지가 많이 형성되면서 수도물을 보관하는 지하저수조와 고가수조, 옥내 급수관 자체의 관리 소홀로 인해 소비자가 만족할 수 없는 수도물이 각 가정이 배달되고 있기 때문이다.

분배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관의 문제와 둘째 저장설비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상수관 시설은 누수율이 30% 이상일 정도로 관의 손상이 심대하며, 관에 대한 코팅 및 적절한 관리와 보수가 필요하나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저장설비의 경우, 대단위 아파트에서 고가수조와 지하저수조만 6개월에 1회씩 청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유재산에 속하여서 지금까지 관리의 손길이 잘 미치지 못하는 저수조와 옥상 수조 및 옥내배관으로부터의 2차적 오염은 수도물 불신의 중요한 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제안회의에서는 수도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과정에서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을 거치면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오염을 사전예방하고 기존의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번 회의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양질의 수도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도사업자의 역할과 함께 소비자인 주민의 역할 모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수도사업자는 양질의 원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월간 수질검사로써 인구비례로 수도전에서 대장균군, 일반세균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주

민들의 요청이 있으면 지역의 대표적인 장소와 가정의 수질검사를 해주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주민들은 무엇보다도 적합한 정수시설 운영·관리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저수조 유지 관리를 위한 전담 관리인을 배치해 문제점과 취약점을 파악하여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 또한 주민대표들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유지관리 및 청소상황을 철저히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저수시설의 올바른 시공과 관리 필요, 수질 보전에 주민 참여를 높여 신뢰성 확보

최 명 렬

서울 시내의 소형 및 대형 공동주택 40곳의 저수조 관리실태와 함께 주민의 관심도를 조사한 결과 안전한 수질 보전을 위한 공동주택 저수조 관리상 가장 중요한 점은 저수조 시설 자체의 올바른 시공과 철저한 관리에 있는 바, 이를 위해서는 관리담당자의 관리 수칙에 대한 올바른 준수 의식과 함께 무엇보다 주민들 자체의 이에 대한 관심 증대가 가장 필수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동주택 저수조의 수질 향상을 위해 관계당국은 저수조 관리의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을 실시하고 노후 된 옥내 배관 교체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저수조 청소업체는 보다 효율적인 저수조 청소방법을 개발해 수질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관리사무소 등 관리담당(주체)는 평소 저수조 주변 환경이나 저수조 자체의 위생적 관리에 힘쓰며 적극적 홍보로 주민참여율을 높여 신뢰감을 회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저수조 청소 시 직접 참여해 관리·감독해야 하며 수질 보

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수질 보전을 위한 주민 수칙을 준수·실천하고, 노후된 옥내 배관 교체의 필요성 인식과 그에 따른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저수조 옥내 설치 주민들 자발적으로 참여, 옥내 급수관 문제 해결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

김진엽

국가가 직접 나서서 광역 상수도 정책에 주력하다 보니 양(糧)적인 팽창은 어느 정도 충족되었으나 시설물에 대한 내구연한이 경과하는 과정에 질(質)적인 수준은 못 미치게 되었다. 이런 틈을 정수기 업체를 비롯한 물 관련 산업들이 앞다투어 수돗물을 폄하(貶下)시켜 현재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고 있다는 국민은 1% 내외이며 극도로 수돗물을 불신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사람은 하루 2,500cc~2,700cc 내외의 수분을 섭취하여야만 생존이 가능하며, 이 수분을 섭취하기 위하여 각종 음용수와 식품 등을 통하여 흡수하고 있다. 물은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어떤 물을 마시고 사용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각종 정수기는 필터관리 문제, 약수터는 지표수 오염문제, 광천수는 지하수 오염문제, 끓인 물은 유기물질이 파괴된 죽은 물이라고 하니 그나마 믿을 수 있는 물은 수돗물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소비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수도설비 관리의 중요성은 두말 할 나위 없다. 그 중 저수조 관리와 옥내 급수관의 관리 문제는 양질의 수돗물을 먹는 첩경이다.

저수조는 가급적 태양광선과 복사열이 미치지 않는 구조에 설치해야 하지만, 건축비를 아끼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다수 단독 주택의 저수조가 밖에 설치되어 있어 관리 소홀과 여름철의 수온 상승 등으로 인해 오염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세계 어떤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수도사업자만 나무라며 수돗물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무신경과 무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저수조는 꼭 옥내로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옥내로 이전이 곤란한 경우에는 햇빛과 열을 차단 할 수 있는 단열재 등으로 감싸 주고, 빗물이 새어 들지 않게 관리하여야 하며, 여름철 전후에 꼭 저수조 청소를 시행해 주어야 한다.

옥내 급수관의 관리문제는 당국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는 과정이며 배관 자재의 선정 기준과 용출기준에 관심을 두어 다각적인 연구를 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부 산하 수 처리 선진화 사업단에서는 6년에 걸쳐 옥내 급수관의 내구성과 관리에 역점을 두어 막대한 인원과 자금을 투입하여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끝으로 어머니가 주기적으로 물독을 닦아내던 마음으로 소비자들이 철저히 저수조를 관리한다면 양질의 수돗물을 사용하리라고 생각한다.

노후 수도관 1984년부터 단계적으로 교체, 옥내수도관 교체 시 정부 지원 법 개정 추진

이상훈

노후관은 관 부설 후 경과기간이 오래되어 부식 등으로 누수가 빈번히 발생하거나 관 내부에 생성된 녹과 스케일로 인해 녹물이 자주 발생하는 관으로써 서울시가 그 동안 사용한 관중에서는 회주철관, PVC관, 아연도강관 등이 이에 해당

한다.

시가 관리하는 수도계량기 이전 배관에 대한 노후관 개량사업은 198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구경 350mm 이하 개량대상 15,509km 중에서 2004년까지 1조 5,796억원을 들여 14,962km를 정비 완료해 정비율이 96.5%이며, 금년도 1,600억원을 투자하여 449km를 정비하면 정비율은 99.4%에 이르게 된다. 나머지 98km는 2006년 이후에 개량할 예정이다.

노후된 옥내급수관 개선방법으로는 교체, 세척·갱생, 수처리기기 설치, 부식억제제(방청제) 주입 등이 있다. 현행 수도법상에는 주민이 옥내 급수관이 노후되어 교체할 경우 공사비의 보조지원은 불가하며 용자는 가능한 상태이다. 용자지원 제도는 서울시에서 1999년경에 실시한 적이 있으나 실적이 저조하여 2년 실시 후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부산광역시 용자알선 후 이자액의 90%를 보조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용자알선만으로는 옥내급수관 관리개선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여 금년도 연말 정기국회 때 통과 목표로 수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안)에 따르면 용자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지원도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사업자는 수돗물관련 정보 제공하고, 시민은 정보 숙지·수질개선 위한 생활수칙 실천

백명수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수돗물은 바로 마시면 병에 걸릴 물'로 인식하고 있어 각종 의식조사 결과에서 직접음용비율이 6%로 한 자리 수에 머물고 있다. 수돗물을 바로 마시지 않는 가장 큰 이

유는 '건강에 해로울 것 같아서'라는 건강위해에 대한 염려(응답자의 80%)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요금을 내고 있지만, 국민 대부분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수질향상을 위해 수도요금을 올리는 것은 반대한다. 정부가 정수처리를 해서 공급하는 수돗물의 수질은 믿지 못해 별도의 비용을 들여 가정 내 정수 장치를 들여놓거나, 혹은 먹는 샘물을 사다먹고 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사회현상인지 질문을 던져본다.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비정상적인 것이 분명하다.

수돗물은 우리가 세금을 내고 공급받는 공공의 먹는 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시는 물이 모이는 상수원이 어딘지, 어디서 취수되는지, 어떤 정수처리를 거쳐 수도꼭지까지 오는지, 이 과정은 누가 관리하고 책임지는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알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다.

서울시의 경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매달 수돗물의 수질검사 결과를 인터넷으로 알려주고 있다. 이를 토대로 우리 가족이 마시는 물의 수질 검사 결과가 안전하다면 건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만일 문제가 생겼다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더 이상 수돗물을 위험한 물로 간주하고 체념할 것이 아니라,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한 방법을 능동적으로 찾아야 한다.

수돗물 관련 정보를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수질개선 실천사항을 생활화해야 한다. 또한 수도사업자에게 시민 눈높이의 수도행정(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는 정보 등)을 요구해야 한다. ■

공동주택 저수조관리 및 주민참여 실태조사

- 저수조 청결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나,
저수조 관리에 대한 주민참여율과 수돗물 신뢰도 여전히 낮아 -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은 주택의 형태에 따라 직수로 직접 사용되거나 저수조에 저장된 후 사용되는 경우로 나뉘어 진다. 공동주택에서는 대부분 직수보다는 저수조를 통과한 물이 사용되어, 대단위 세대를 위한 물의 안정적 공급에는 효율적이지만 직수에 비하여 수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회는 공동주택 거주 주민의 안전한 수돗물 사용을 위한 발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5월 23일~6월 2일까지 서울시내 소형 및 대형 공동주택 단지 내 저수조 40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와 함께 주민참여 실태를 점검하였다.

저수조는 옥상 및 지하에 위치하고 있고 대체로 청결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사대상이 된 공동주택 단지 40곳은 빌라단지 2곳(5%)만 제외하고 모두 아파트(95%)였으며, 건축년도는 1980년대에서 1990년대가 대부분(75%)이었고, 전체 세대의 규모는 대부분 200세대에서 1,000세대 미만(70%)이었다.

공동주택단지의 저수조의 위치는 옥상 및 지하(45%), 지하(40%), 옥상(15%)의 순서로

자리하고 있었으며, 저수조의 관리 주체는 대부분 관리사무소(90%)였고 주민자치회인 곳은 10%였다.

저수조 주변의 환경은 대체로 청결(87.55)했으며 일부만 보통 수준(5%)이었다. 저수조 주위의 쓰레기나 오물 등은 40곳 모두 없었고(100.0%), 고인물이나 용수 등도 없는 것(100.0%)으로 나타났다. <표 1-1>

저수조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한 경우(25%),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이 어렵게 잘 설치되어 있었다.

<표 1-1> 저수조 주변환경

항 목	실수 및 구성비(%)
대체로 청결	35(87.5%)
대체로 불결	0
보통 수준	2(5%)
무응답	3(7.5%)
계	40(100.0%)

저수조 상태는 대부분 청결하고 누수 위험 적었으나, 환기통의 방충망 설치는 미흡해(32%)

대부분 청결하고 정상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다만, 일부에서 빗물이 유입될 위험(5%)이 있었다. 그 외 유출관과 배수관의 접합부분 고정상태가 불량하거나(5%), 저수조 윗부분에 먼지나 유해물질이 있거나(11.1%), 맨홀 뚜껑의 부유물질 혼입 우려가 있는(5%) 등의 미비점이 발견되었다. <표 2-1>

<표 2-1> 저수조의 상태

항 목	실수 및 구성비(%)
대체로 청결	36(90%)
대체로 불결	0
보통수준	3(7.5%)
무응답	1(2.5%)
계	40(100.0%)

특히, 환기통의 경우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32.5%였으며, 저수조에 자물쇠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5%)이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저수조 관리는 관리사무소(90%)가 담당, 관리내용은 관리감독과 주변환경정리, 저수지 청소는 청소대행업체(75.6%)가 담당

저수조를 관리하고 있는 주체는 관리사무소(90%)와 주민자치회(10%)였으며, 관리자의 주된 관리내용은 저수조 청소시 관리감독(29.8%)과 저수조 주변 환경의 정리(23.4%) 및 울타리나 자물쇠 등 시설관리(16.9%)와 청소(10.5%) 외에 수질검사 의뢰(9.7%)나 수질 점검(8.9%) 등이었다. <표 3-1>

<표 3-1> 관리자의 저수조 관리 내용(복수응답) 항목

항 목	실수 및 구성비(%)
주변환경 정리	29(23.4%)
울타리나 자물쇠 등 시설관리	21(16.9%)
저수조 청소	13(10.5%)
저수조 청소시 관리감독	37(29.8%)
수질점검	11(8.9%)
수질검사 의뢰	12(9.7%)
무응답	1(0.8%)
계	124

저수조 청소의 담당주체는 청소대행업체(75.6%)나 관리사무소(19.1%), 또는 주민자치회나 주민대표(12.7%)였고, 저수조 청소 시 주민들의 참여도는 높지 않다는(55%) 답변이 많았다.

최근 2년간의 저수조 청소기록부는 1곳(2.5%)을 제외하고 모두 잘 비치되어 있었으며, 기록된 최종 청소일자는 2005년 3월~5월(59.5%)이 가장 많았으며, 2004년 11월~12월(30%), 2004년 8월~10월(7.5%)로서, 6개월 청소주기를 준수하고 있지 않은 곳은 4곳(10%)이었다.

저수조 청소시 주민 참여율 16.1%에 불과 노후된 관과 녹물 때문에 청소 결과엔 불만족(53%)

저수조 청소 시 참여 경험에 있는 경우는 16.1%에 불과하였고, 참여 동기는 부녀회장·부녀회원·동 대표 등의 자격으로 관리·감독을 위하여(35.8%)와 주민의 입장에서 입회·참관(64.2%)한 것으로 답변되었다.

평소 저수조 청소 결과에 대하여 만족(16.4%)한 경우보다는 불만족(53.0%)하는 경우가 높았으며, 그 외 잘 모르겠다(30.6%)는 답변율도 높았다.

만족한다고 답변한 경우(16.4%) 그 이유는 직접 청소상태를 확인하기 때문(63.6%)이 가장 높았고, 불만족한다고 답변한 경우(53.0%) 그 이유는 노후된 관(50%) 때문이거나 녹물이 나오기 때문(50%)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저수조 청소 시 참여의사가 있는(51.8%) 경우가 없는(48.2%) 경우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결론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볼 때 안전한 수질 보전을 위한 공동주택 저수조관리상 가장 중요한 점은 저수조 시설 자체의 올바른 시공과 철저한 관리에 있는 바, 이를 위해서는 관리담당자의 관리 수칙에 대한 올바른 준수 의식과 함께 무엇보다 주민들 스스로 이에 대한 관심 증대와 실천을 생활화해야 한다.

특히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한 시민 신뢰도가 매우 낮은 시점에서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저수조의 청소 일을 미리 홍보하고 청소의 결과에 대하여도 사진 촬영 등의 자료를 통하여 널리 알려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아울러 신뢰감을 주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관리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주민의 입장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의 수질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불만이나 무관심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여 확인함으로써,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적극성을 보여야만 보다 안전한 물을 확보할 수 있다.

안전한 물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깨끗한 물을 지키려는 정부와 주민의 적극적 실천 자세에 필요함을 알아야 한다. ■

소비자지식



식중독 예방요령 알아두세요

기온이 올라갈수록 음식물 변질, 식중독균의 다량 증식 등 식품에 대한 위해가 증가하고 있다. 식품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가 대단히 크고, 특히 섭취 후에는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때로는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요망되는 것이다. 개인위생 및 음식물 보관관리에 필요한 식품 저장요령과 식품 조리시 유의사항을 통해 식중독을 예방하자.

식중독이란?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으로, 식중독으로 인한 일반적인 증상은 고열, 복통, 설사, 구토, 두통 등이 대표적이며 때로는 호흡곤란, 탈수증상 등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하게 할 수도 있다.

식품의 구입 및 저장요령

- 식품의 포장과 보관 상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필요한 만큼 소량 구입한다.
- 신선한 제품을 구입하고 식품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 봉투에 넣는다.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주의한다.
- 생식품과 조리된 식품은 따로 저장한다.
- 냉장고를 과신하지 않는다. 냉장은 식품 내 세균을 죽이지 못하며, 다만 식품의 부패와 변질 속도를 늦추는 것에 불과하므로 과신하지 않는다.
- 한번 해동한 식품은 재냉동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식품의 조리시 유의사항

- 식품을 취급하는 손은 비누로 깨끗이 씻고 조리대는 청결하게 유지한다.
- 식품과 접촉하는 주방도구는 소독하고 건조시켜 청결하게 보관한다. 육류·생선류를 다루는 칼과 도마는 날것으로 먹는 과채류를 자르는 칼과 도마와는 구분해 사용한다.
- 과일·채소류는 흐르는 수돗물에 씻는다.
- 조개류는 미생물이 많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조리 전 껍질을 깨끗이 닦아 껍질의 오염이 음식에 혼입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육류의 핏물을 빼기 위해 담가 둔 물에 다른 재료 또는 조리 기구를 담그지 않도록 한다.
- 조리된 음식이나 식품은 65℃ 이상 또는 4℃ 이하로 보관하여야 한다. 조리음식은 가능한 한 1~2시간을 초과하지 말고, 냉장식품을 제공할 시는 70℃ 이상으로 충분히 가열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소비자의 소리

택배사에 배송 의뢰한 미술용구 팔레트 두달이 지나도 록 배송처리 안되어 끝내 분실되었다며 낙장 처리

내용 이훈희(충남 천안시 청수동) 씨는 충남 홍성여고에 재직하다가 '05년 2월 27일 천성중학교로 전근이 되어 KGB 택배사를 이용하여 미술용구(팔레트 25만원 상당)를 배송의뢰 하였다. 두달이 경과하도록 제품을 받지 못하여 문제제기 하니 분실되었다며 분실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계속 미루며 해결이 되지 않아 신고했다.

처리 택배사에서는 3년 정도 사용한 제품이므로 30% 배상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분실된 제품이 시중에서 구입할 수 없는 맞춤형제품 팔레트여서 사용가능 기간이 최저 6년 이상으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50% 배상 주장, 사업자와 배상 합의 중재로 50% 125,000원을 배상 처리해 주었다.

전화로 구입한 상품대금 1달도 안되어 소송비 포함 지 급명령 최고장 송달

내용 변재령(제주시 건입동) 씨는 '05년 6월 20일 경에 위너스 홈쇼핑에서 사슴엑기스 구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금액은 49,800원이고 한 달이내로 입금하면 된다 했는데 상품은 6월 말경에 택배로 받았다. 상품대금은 7월 이내로 입금시

킬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당 업체에서 지급명령 최고장이라며 원금 49,800원과 소송비용 14,800원을 포함하여 64,600원을 '05년 7월 19일까지 입금하라는 청구서를 받았다.

처리 해당 사업자는 6월 18일에 상품이 배송되었다고 6월 30일까지 입금 완료하기로 약속을 하였으나 입금 처리가 되지 않아 소비자의 자택으로 대금 독촉전화를 몇번 했으나 전화연결이 되지 않아 지급명령 최고장을 발송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아직 소송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서면통보하지도 않은채 바로 소송비용을 14,800원 청구한 것은 부당하므로 7월 19일까지 상품대금 원금만 49,800원 입금하기로 처리하였다.

광고 내용 보고 구입한 소형냉장고, 제품인도 받고 보 니 냉장전용이었다

내용 김영미(경기도 고양시 주교동) 씨는 사무실용으로 소형냉장고(72l)를 홈쇼핑 광고를 보고 구입했다. 광고에는 냉동칸 부분에 얼음용기와 아이스크림 광고사진이 붙여져 있어 구입했는데, 상품 도착한 후에 보니 냉장전용이라는 문구가 있어 그대로 두었다가 다음날 제조사에 냉동기능 여부에 대한 확인 전화를 하니까 냉동이 천천히 된다고 하였다. 전기 코드를 꽂고 3일이 지

난 후에 보니 얼음이 얼지 않아 사용할 수가 없어 환불을 요구하였다. 홈쇼핑 회사에서는 제조사의 책임이라고 하고, 제조사측은 냉장전용 표시를 했으므로 서로가 면책 주장, 책임을 전가한다.

처리 소비자에게 오인 오도케 하는 광고내용에 대해 홈쇼핑사에 삭제해 줄 것을 건의, 제품홍보시 냉장 전용임을 확실히 설명해 시정요구했고, 제조사측에서도 관련 이미지들을 삭제시켰으며 소비자가 확인하고 전기코드를 꽂은 점을 인정 전액(198,000원)을 환불처리 해주었다.

변호사 수입료, 상대방의 소취하로 환급요구에 계약서 조항이유로 환불 거부한다

내용 전정애(경남 양산시 교동) 씨는 동업 관계자였던 사람이 본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P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고 '05년 5월 9일 착수금으로 5백만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상대방의 소취하로 소송이 불필요하여 '05년 5월 18일 이 사실을 담당 변호사에게 알리고, 착수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착수금은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계약서의 조항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한다.

처리 본회에서 확인한바 담당변호사가 이 건의 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없었고, 당사자의 계약서에 어떠한 사유에도 착수금 불반환이라는 조항은 소비자를 불리하게 하는 불공정한 약관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이 있었으며 이후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표준위임계약서에 이 내용을 삭제토록 하고 있음을 들어 삭제를 요구하였다. 또한 이 건의 수입료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는 상대방이 소를 취하한 이유가 형사고소 등의 조치에 대한 담당변호사의 자문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착수금은 민사소송을 위한 수입료로서 이

는 위임사무를 전제로 하여야 할 것임. 이 건으로 하여 담당변호사가 지출한 금액에 대한 자료 제시를 하지 못하고 특별한 일을 한 것이 확인되지 않아, 4백만원을 소비자에게 환불토록 중재처리 하였다.

인터넷통신 계약 변경하여 위약금 대납 약속 이행 안 되어, 청구 요청

내용 정종순(울산광역시 중구 반구1동) 씨는 한국통신 인터넷 메가패스를 사용하다가 한국케이블에서 인터넷 사용요금 할인 및 혜택을 많이 준다고 하여 '04년 7월 가입했다. 2년 약전 할인으로 계약하면서 계약 당시 해지 위약금을 한국케이블에서 대납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행치 않고 '05년 2월 한국케이블측에 해지 신청하고 애당초 약속한 한국통신 해지 위약금 청구요청함.

처리 한국케이블에서 한국통신 인터넷 해지 위약금을 대납해 주기로 하고, 소비자가 다시 한국케이블 인터넷 가입하는 것으로 계약처리 하였다.

할인점 주차장 주차 후 쇼핑하고 나와보니 차량 옆면 에 흠집이 생겨 보상 요구

내용 최옥연(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씨는 까르푸에서 상품 구입 후 차를 타려고 나와보니 주차장에 세워진 차가 옆면에 흠집이 나 있었다. 까르푸 매장 경비 직원에 문의하니 주차된 곳이 기둥 뒷편이라 CCTV가 보이지 않는 지역이므로 개인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한다.

처리 관련법규상 공영주차장이 아니면 민사문제로 해결할 사안이나 고객관리 차원에서 3만원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배상처리 하여 주었다.

(곽정자 / 본회 소비자상담실장)

3대가 함께하는 가족사랑캠프

최근 우리나라 가족
바뀌면서 가족간의 결속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본회는
시간을 통해 가족 간 화목을 도모하고
지난 6월 24일~26일 모들자리 관광농원
가족사랑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자연체험을
사랑을 만들었던

문화가 개인중심문화로
약화되어 가족해체의
조부모, 부모, 자녀 3대가 함께하는
결속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강원도 홍천군에서 '3대가 함께 하는
16가족 120여명이 참가한
통해 가족의 따뜻함과
소중한 시간이었다.

- 1 강당에 모여 입소식을 갖고 박현출 레크레이션 강사의 지도하에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한 '가족친교의 시간'
- 2 저녁 식사 후 화기애애해진 분위기 속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영화 '말아톤' 감상.
- 3 준비운동을 시작으로 전 가족이 수박나라와 토마토나라로 팀으로 나눠 경기가 펼쳐진 '캠프올림픽'
- 4 목은 감정을 풀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 팀이 되어 새로운 가족문화를 형성하게 된 '고부간 사랑 쌀기 운동'
- 5 '변화하는 사회, 변화하는 가치관'이란 주제로 발상의 전환을 통한 바람직한 가족관계 형성을 강조한 이연숙(전 정무장관)님의 강의

- 6 자연체험시간을 통해 가족 모두가 동심의 세계를 느낄 수 있었던 '가족여학 꾸미기와 송어잡이'
- 7 캠프 화이어 시간에 멋지게 타오를 불꽃을 직접 만들었던 '가족불꽃만들기'
- 8 반짝 거리는 별빛 아래에서 준비한 불꽃과 폭죽으로 밤하늘을 수놓으며 가족 사랑의 결실을 맺은 '가족장기자랑 및 캠프 화이어'
- 9 마지막 날 가진 어린이 '쌀사랑교육'과 한국도서관급회 이성원 이사장의 '합리적인 생활경제'에 관한 강의
- 10 2박3일 동안 함께했던 가족 모두가 함께 아쉬움을 달랬던 마지막 댄스 시간

에어컨 구입 아직도 망설여지시나요?

- 에어컨 구입 요령과 사용할 때 주의사항 -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밤이면 간절하게 생각나는 것 중 하나가 에어컨일 것이다. 그러나 에어컨을 구입하려고 하면 전기료 걱정이 앞서 계속 구입을 망설이다가 막상 마음먹고 구입하려고 하면 어느 회사의 제품을 구입해야할지 망설여지게 된다. 소비자보호원이 국내 5개 회사의 에어컨 품질을 테스트하여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에너지 구입요령과 사용방법을 알아본다.

100년 만에 무더위가 있을 것이라는 기상예보 때문에 에어컨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어느 해보다도 높지만, 고유가시대와 경제 불황으로 에어컨 구입이 만만치 않다.

마음먹고 에어컨을 구입하려는 소비자에게 또 하나의 걸림돌은 해마다 신기술 개발로 신제품을 출시하는 에어컨 시장에서 어떤 에어컨을 구입할 것인가이다.

에어컨 구입요령

냉방성능 비슷하다면 소비효율 높은 제품 선택,
디자인 강조한 제품들 동급 제품보다 가격 높아

에어컨하면 떠오르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찬 바람, 전기료, 소음공해 등이 있지만 뭐니뭐니해도 에어컨 구입 때 가장 먼저 전기료가 생각날 것이다. 일단 에어컨은 소비되는 전력이 크기 때문에 경제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냉방에 소모되는 전기를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가 중요하다. 이를 나타내는 값이 소비효율(냉방능력을 소비전력으로 나눈 값)이며, 이 값이 클수록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여 큰 힘을 낼 수 있는 것이다.

즉, 비슷한 냉방능력이라면 소비효율이 제품 선택의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가전제품의 고급화, 차별화 경향에 따라 성능과는 별도로 디자인을 중시한 제품들도 있는데, 동급제품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능 및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제품을 고르는 것이 현명한 소비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에어컨 구입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에어컨 구입시기는 성수기가 아닌 봄이 좋다

여름철 에어컨을 구입하다보면 주문이 많아 10일 가량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봄철에 구입하면 에어컨을 꼼꼼하

게 설치할 수 있어 설치 과정의 불량률을 줄일 수 있다.

▶ 사용 목적을 고려해 평수에 맞는 용량을 선택한다

서재나 공부방에 에어컨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벽걸이형이 알맞다. 집안 전체를 냉방하기 위해 용량이 큰 스탠드형 에어컨을 설치해도 우리나라 가옥 구조상 방은 냉방 효율이 떨어지므로 신중해야 한다. 또한 에어컨의 용량을 선택할 때 아파트 평수의 1/2, 주택은 평수의 2/3를 선택하면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다.

▶ 에어컨은 '전기 먹는 하마' 이다

구입할 평형을 결정한 후에는 에어컨의 절전성을 고려한다. 최저소비효율 달성률이 높은 절약형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 실외기가 중요하다

에어컨을 구입하는 대부분의 소비자는 집안 내 설치하는 실내기만을 중시하고 밖에 설치하는 실외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에어컨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당량의 냉매가 충전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냉매량이 적을 경우에는 효율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용 전에는 냉매량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냉매주입은 초기 설치 때만 잘하면 오랜 시간 경과되어도 누설이 되지 않아 초기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냉매 조절 장치인 콤프레서와 응축기가 있는 곳이 바로 실외기이기 때문에, 에어컨을 구입할 때는 실외기의 콤프레서를 눈여겨봐야 한다. 디자인에 혹해 구매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 설치비를 고려한다

기본 설치 자재로 설치할 경우 설치비는 무

료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추가 지불 비용이 생긴다. 설치 장소는 실내기와 실외기가 되도록 가까운 곳으로 정한다.

사용할 때 이런 것 알아두세요

▶ 지나치게 낮은 온도 설정은 금물

필요 이상으로 계속 온도를 낮게 설정하면 과도한 전기 소모와 고장의 원인이 된다. 26~28℃의 적정 온도로 맞추어 놓는 것이 알맞다.

▶ 처음 작동시 환기시킨다

에어컨은 처음 작동할 때 가장 많은 먼지와 세균이 토출돼 나온다. 그러므로 처음 켤 때는 반드시 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다.

▶ 배출구에 물방울이 생길 때

실내 공기 중에 포함된 습기가 물방울로 변해 배출구에 맺히는 현상으로 고장이 아니므로 마른 수건으로 닦아준다.

▶ 흡입구에서 '따닥' 소리가 날 때

공기청정기에 이물질이 끼어있을 수 있다. 운전중 정지시키고 흡입구를 열어 청정기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 정지 후 곧바로 운전시 찬바람이 나오지 않을 때

실외기에 장착된 압축기를 보호하기 위한 압축기 보호 기능이 작동한 상태이므로 약 3분 후 자동으로 찬바람이 나온다.

▶ 송풍 운전으로 내부를 건조시킨다

여름이 지나 보관할 경우에는 6시간 정도 송풍 운전을 시켜 내부를 건조시킨다. 그래야만 습기를 없애 곰팡이의 번식을 막을 수 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곰팡이 억제제를 뿌려준 후 내부를 건조시켜도 좋다. ■

7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건설 · 교통

▶ 국민임대주택 후분양 실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내달 1일부터 공정의 12개월전(공정 70%)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장기적으로는 6개월전(공정 80%)으로 조정된다.

▶ 개발제한구역 재지정

7월 27일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된 뒤 당초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해제목적이나 용도 등에 부합되지 않으면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될 수 있다.

▶ 철도 운임 제도 변경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한 상한 범위 내에서 철도 사업자가 자율로 요금을 책정한다. 건교부는 철도 서비스를 2년마다 평가해 공표한다.

세 제

▶ 종합부동산 도입 · 시행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합산, 일정액이 넘으면 종합토지세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12월

과세한다. 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이 적용 대상이 되나 대지는 공시지가 6억원, 사업용 부동산은 공시지가 40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 경유가 인상과 LPG가 인하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경유에 붙은 세금은 1당 319원에서 365원으로 오르고 LPG는 1당 245원에서 210원으로 내린다.

행정 · 법무 · 외교

▶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7월 1일부터 매주 토요일 휴무를 실시한다. (경찰 소방 교정 교원 등 일부 특수 분야 공무원 제외)

▶ 출입국 사실증명 인터넷 발급 및 신원보증 공증제도 폐지

7월 15일부터 인터넷(www.egov.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9월부터 출입국 관리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 신청시 신원보증서에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 사진전사식 일반여권 발급

위 · 변조 방지를 위해 8월말부터 여권이 사

진 부착식에서 사진 전사식으로 변경된다. 또 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고, 8세 미만 동반자를 부모 여권에 병기하는 제도도 폐지된다.

교육 · 복지 · 노동

▶ 정부신용보증방식 학자금대출

학비가 없어 대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학자금대출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정부 신용보증방식으로 보증기금의 일정배수까지 대출이 늘어난다.

▶ 학교 환경위생 관리제도 도입

학교 신축시 의무적으로 새 학교 증후군 원인물질을 측정해야 한다.

▶ 주 5일 근무제 확대 실시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무원도 주 5일 근무제 실시 대상에 포함된다.

▶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 확대 및 아파트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 구두 등에 대해 의료급여 혜택이 주어지고, 아파트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 법령에 정하는 비율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등 연금보험료 상향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 ·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이 표준소득월액(가

상 거 래

▶ 전자상거래 반품 범위 확대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거래할 때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거래를 취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물품의 반품을 사업자가 거부할 때는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손상된 것',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반품이 불가능함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한다.

해외투자

▶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한도 증액

100만 달러(약 10억원) 이내였던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한도가 300만 달러(약 30억원)로 늘어나고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의 30%(혹은 300만 달러)까지로 해외 투자가 가능해진다.

▶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요건 완화

거주자 본인 외에 배우자가 2년 이상 해외 체류 및 목적이 증명되는 경우 주거용 주택 구입이 허용된다. 금액 제한도 종전 30만 달러(약 3억원)에서 50만 달러(약 5억원)로 확대하고 금액과 상관없이 국세청에 통보하던 것도 20만 달러 초과일 때만 통보한다.

‘빡통’ AS센터 주의하세요

서울 종로구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에어컨을 고치기 위해 114에서 안내받은 업체에 수리를 의뢰했다가 오히려 봉변을 당했다.

김씨는 114에 대기업인 A전자의 서비스센터 전화번호를 문의했지만, 114에서 안내해 준 곳은 A전자와 전혀 관계없는 사설 서비스 업체였기 때문. 김씨는 사설 업체 직원이 수리 과정에서 에어컨 배관을 망가뜨린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다시 연락을 했지만, 사설 업체 관계자는 오히려 화를 내며 절대 변상해 줄 수 없다고 버텼다.

소비자들은 114 안내에 LG전자·삼성전자·대우일렉트로닉스 등 전자 업체의 서비스센터 전화번호를 물을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김씨 사례처럼 대기업이 운영하는 정식 서비스센터가 아니라, 대기업의 상호를 도용한 사설 업체로 연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

LG전자가 최근 수도권·영남·호남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114에서 사설 수리 업체 번호를 안내하는 경우가 평균 50% 정도였으

며, 심한 지역은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서비스센터의 대표번호를 정확히 안내받기 위해서는 114에 ‘××전자 서비스’라고 문의해야 한다. ‘XX에어컨서비스’ 등과 같이 회사명과 제품명을 함께 문의하는 경우엔 사설 업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각 전자업체는 사설 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브랜드 도용에 대한 시정 권고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114 안내에도 전자 업체의 서비스센터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면 대표번호로 안내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고 있다. <조선일보 6. 17>

“우표요금도 현금영수증 받아가세요”

다음 달부터 우표 구매 등 우편요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며, 9월부터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도 출시된다.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내달 1일부터 전국 3000여개 우체국(인터넷 우체국 포함)에서 우편요금과 우체국쇼핑 판매대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체국 이용자는 한번에 5,000원 이상 현금으로 우편요

금(상품대금)을 납부한 뒤 본인확 인수단인 신용카드나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중 한 가지를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발급대상은 우편요금, 우표(엽서)류 판매대금, 우편취급수수료, 우체국쇼핑 및 꽃 배달 판매대금, 소포상자판매대금 등이며 문화상품권 복권 쓰레기봉투 전화카드 기프트카드 등은 제외된다. 한편 국세청은 이르면 9월부터 기업들과 공동명의로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발급하기로 했다.

<한국일보 6. 28>

“보험약관 전화로만 읽어주면 효력없어”

TM(텔레마케팅)을 통해 보험가입을 권유하면서 보험사측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약관의 면책조항을 전화로만 읽어준 것은 보험사가 약관 설명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최은수)는 6일 압보험 가입 후 두 달여 만에 위암을 발견한 소모(47)씨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L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는 소씨에게 보험금 전액인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씨에게 승소 판결했다. 소씨는 2001년 12월 전화로 보험가입을 권유받고 압보험에 가입했다가 얼마후 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위암이 발견되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측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보험사측은 소씨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할 당시 전화 녹음으로 ‘계약 후 90일 이전에 암이 발견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설명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같은 조항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명시적으로 설명해야 할 중요한 내용인데, 보험사 직원이 전화로 빨리 읽어준 것만으로는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7. 7>

음이온 팔찌 불티...효능과신은 금물

음이온 팔찌와 목걸이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음이온 액세서리의 효능을 과신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10일 온라인 경매사이트 옥션에 따르면 음이온 목걸이와 팔찌가 하루 700여개씩 판매되고 있다.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은 토르

말린이나 티타늄, 게르마늄 등을 함유한 실리콘 재질의 팔찌와 목걸이. 디자인이 단순하고 색이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가격은 5000~3만원대.

음이온 액세서리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효능에 대한 입소문도 빠르게 퍼지고 있다. 컨디션이 좋아졌다는 반응부터 관절염, 불면증이 나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강북삼성병원의 서병성 교수는 “공기중에도 1대 3.5 정도로 양이온과 음이온이 각각 존재하는데 최근 오염으로 그 비율이 역전되는 추세”라며 “음이온은 체내 세포를 활성화하는 등의 기능이 있지만 질병을 낮게 하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 을지대학병원 오장균 교수는 “일시적인 유행이며 효능을 입증한 연구결과는 없다”며 “다만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일보 7. 10>

인터넷 몰 이용엔 사업자정보 꼭 확인... 공정위, 7대 안전수칙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인터넷 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인터넷 쇼핑 몰 이용 소

비자 7대 안전수칙’을 마련, 발표했다.

공정위는 사이트에 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통신 판매업 신고번호 및 신고기관 등 신원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기본적인 신원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사이트와 거래하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거래를 하지 말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 무료 서비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 추첨·복권식의 사행성 방식 등을 동원한 판매는 제품 품질에 하자가 있거나 사후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인증마크를 무조건 신뢰하지 말 것 △결제의 안전성 여부 점검 △거래 조건 확인 △주문 결과 확인 및 계약 정보 출력 보존 등을 지켜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안전수칙은 아울러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공정위(02-503-2387),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소비자보호원(02-3460-3000) 등에 신고, 신속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한국경제 7.13>

음료분말서 설탕여리 검출 ...
업체 '배짱 판매'

세계적인 식품업체의 음료 분말에서 설탕여리가 발견됐다. 서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코스트코코리아가 지난 4월22일부터 수입, 판매한 ‘네스 티아이스티 믹스 레몬’ (2.3kg) 제품에서 설탕여리가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런 사실은 시민의 제보가 단서가 돼 드러나게 됐다.

서울 상계동에 사는 A(15)양은 지난 4월, 작년에 구입한 ‘네스티 아이스티 믹스 레몬’ 분말을 물에 풀어 먹다 원반 모양의 작은 설탕여리를 발견했다. A양의 부모는 시민단체를 통해 판매처에 항의했지만 제품을 수거해 가지도 않았다. 전국NGO연합은 서울지방식약청에 유통 중인 제품을 검사해 달라고 의뢰했고 지난달 24일 설탕여리가 든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판매사는 이를 뒤인 지난달 26일에야 판매를 중지하고 거의 한달이 지난 6월21일부터 구입자들에게 이메일로 알리고 회수해 나서는 등 느장대처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전국NGO연합 강중

환 실장은 “업체가 소비자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바람에 설탕여리가 발견 된 뒤에도 이 제품이 시중에 2100개가 유통됐다.”면서 “설탕여리가 검출된 뒤에도 판매사는 숨기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6. 27>

감초, 유방암 억제에 '감초'

한방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약재인 감초에 여성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성분이 있으며 이 성분은 유방암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내 바이오벤처 업체인 RNL생명과학(주)과 이영순 서울대 수의대 교수 연구팀,한국식품연구원이 공동연구를 한 결과, 감초 성분의 하나인 이소리퀴리틴(isoliquiritin)이 이같은 효능이 있음을 입증하는데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지난 3월 유럽의 국제학술지인 캔서 레터(Cancer Letter) 인터넷판에 실렸으며 이 학술지의 본지 9월호에 정식 게재될 예정이다.

여성 갱년기 증상은 폐경기에 들어서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부족으로 생기며 이에 대한 치료법으로 인공적으로 합

성한 에스트로겐을 체내에 투여하는 방식이 이용되고 있지만 자궁암 등의 발병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감초에서 추출한 ‘이소리퀴리틴’ 성분은 체내에서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면서도 그 화학적 구조는 완전히 달라 이러한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의 관계자는 “이소리퀴리틴은 값싼 한방재료인 감초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뛰어나다”며 “앞으로 이소리퀴리틴의 유방암 치료 효과도 규명해 유방암을 퇴치하는 새로운 길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7. 11>

발암물질 의심 중국산 맥주 전량 수거

시중에 유통 중인 중국산 맥주가 발암 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돼 전량 수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산 맥주의 95% 이상이 제조 과정에서 침전물 제거를 위해 쓴 ‘포름알데히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중국 언론 보도에 따라 올해 수입된 중국산 맥주를 긴급 수거해 검사하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중국산 맥주의 포름알데히드 함유량은 중국 식품안전법이 정한 기준치의 6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름알데히드는 독성이 강한 발암 물질로 많이 흡수하면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수 있다. 올해 수입된 중국산 맥주는 12개사의 15종이며 13억 원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청은 앞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맥주에 대해서도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동아일보 7. 12>

콩, 전립선암 예방 특효

콩 단백질을 함유한 식품과 음료를 정기적으로 섭취 시 전립선 암의 발병률을 최대 3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국적 기업인 솔레 컴퍼니의 암 연구소 소장인 린 안 박사와 워싱턴대학의 수학과 교수 에드워드 스피츠나겔 박사팀은 국제암 전문지 6월호에 콩 단백질을 함유한 식품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남성의 경우 전립선 암 발병 위험이 최대 30%까지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유엔 통계자료를 근거로 해 영양소와 전립선 암 사망률의

관계를 국가별로 분석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관련 자료가 가능한 42개국의 사례 분석에서 콩 단백질의 섭취와 낮은 전립선 암 사망률 사이의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또한 콩에서 나오는 방어 물질이 다른 어떤 식이요인의 것보다 4배 이상은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이 조사됐다.

린 안 박사는 연구보고서에서 “콩 단백질은 전립선 암 예방 효과 외에 건강 유지,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 및 당뇨병 완화의 효과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들을 갖고 있다”면서 “최근 콩 단백질의 심혈관 질환 감소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와 함께 다양한 기능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7. 13>

고추 많이 먹을수록 비만 적다

고추를 많이 먹는 사람이 날씬하다는 세간의 속설이 실제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상대 식품영양학과 김석영 교수팀은 20대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붉은 고추 1일 섭취량과 신체 치수를 비교한 결과, 고추

섭취량이 높을수록 허리둘레는 작고 체지방량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고추가 비만을 예방한다는 것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동물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실제 고추 섭취량과 신체 수치를 비교한 것은 처음이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로 고추안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이라는 교감신경 항진 물질이 체지방 분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추 단일 품목의 섭취량을 늘려 살을 빼는 속칭 ‘고추 다이어트’의 효능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는 사람이 일상적으로 식사를 통해 섭취하는 붉은 고추의 양을 측정해 이뤄진 것”이라며 “단순히 고추를 많이 먹을수록 살이 빠진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과학적으로 무리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즉 평소 고추를 많이 먹는 우리 고유의 식습관이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7. 13>



여성 투명 슬리퍼 오래 신으면 척추에 나쁠 수도

젤리 슈즈(사진)가 올 여름 여성신발 시장을 점령했다. 남대문·동대문 시장부터 인터넷 쇼핑 물까지 신발 가게는 모두 젤리 슈즈를 앞에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 2만~3만원대였던 가격도 올해는 2000원부터 2만원대로 대폭 내렸다. 소재나 모양은 가격에 상관없이 비슷비슷하다. 올해는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젤리 슈즈는 통풍성이 좋고 물에 젖지 않아 장마철이나 휴가철에 많이 팔린다. 특히 부드러운 고무 소재로 만들어져 발에 굳은살이 생기는 것도 막아 준다. 그러나 얹어놓은 끈이 끊어지면 수선할 수 없고, 더러워져도 세탁할 수가 없어 일회용 신발이라는 불평도 나온다. 또 마찰력이 약해 비 오는 날에는 미끄러질 위험이 있다.

의료업계에서는 젤리 슈즈의 열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신발은 발을 보호하기 위해 신는 것인데, 이 신발을 신으면 정상적인 보행이 힘들다는 것이다.

또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 전문의들은 이 신발이 장기적으로 척추와 골반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전영순 지안

메디포츠 원장은 “걸음은 뒤꿈치가 먼저 닿고 그 다음 발바닥 전체로 딛고, 발가락이 시작하는 부위가 땅을 차주는 3단계로 이뤄져야 한다”며 “젤리 슈즈는 너무 말랑말랑해 걸음의 3단계를 방해한다”고 말했다. 전 원장은 그러나 “젤리 슈즈를 기분전환용으로 피서지에서 신거나 동네 가게에 잠깐 다녀올 때 신는 것은 건강에 큰 무리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6.28>

여성 50%, “결혼 후 퇴사 압력”

직장여성 10명 중 5명은 결혼 후 퇴사 압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김남일)이 기혼 여성직장인 346명을 대상으로 “결혼 후 직장, 남편, 시댁 등 주변으로부터 퇴사의 압력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설문을 실시한 결과 50%가 “있다”고 응답했다.

“압력을 가장 심하게 행사했던 곳”은 ‘직장’이 53.1%로 가장 높았고 ‘기타’가 25.9%, ‘시댁’ 11.6%, ‘배우자’ 6.1%, ‘친정’ 3.4%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여성의 경우 특히 출산 후 퇴사 압력을 더 많이 받고 있었다. ‘출산 후 퇴사 압력 경험’을 묻는 질문에 ‘있다’는 응답이 66.7%로 출산 전보다

16.7% 높았다.

‘출산 후, 역시 퇴사 압력을 가장 심하게 행사했던 곳’은 ‘직장’으로 51.5%를 차지했다.

그러나 직장 여성의 72.1%는 결혼 후에도 직장 생활을 계속 하고 싶다고 응답해 사회참여에 대한 높은 욕구를 보여주었다.

김홍식 사람인 사업본부장은 “모성 보호법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결혼과 출산을 이유로 능력 있는 여성 인재들의 사회 활동을 막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7. 1>

‘존 스쿨’ 내달 도입

법무부는 10일 성매매 여성이 직접 강사로 나서 성구매자로 입건된 남성을 지도하는 이른바 ‘존 스쿨(John school)’ 제도를 이르면 8월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 시작돼 전세계 10개국에서 운영 중이며, 미국에서 성구매 남성들이 체포된 직후 대부분 자신의 이름을 ‘존(John)’이라고 둘러댄 데서 유래했다.

법무부는 대검과 협의해 관련 내부지침을 만들고, 교육이 이루어질 일선 보호관찰소와 세무사당을 논의 중이다. 교육내용은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 종사자들의 인권유린 실태를 알리는 내용으로 이루어지며, 강사로 나설 성매매 여성은 여성단체 등과 연계해 섭외할 예정이다. 하루 8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집단교육 1차례를 포함해 한달에 1~2번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존 스쿨의 유래는 199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시민단체 세이지(SAGE)가 시 사법당국에 제안한데서 시작됐다. 미국의 경우 존 스쿨 이수자의 재범률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존 스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

재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초범자 경우)을 줄이고, 피의자에게 ‘법원에 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나 ‘존 스쿨을 이수’ 하는 것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일보 7.10>

일하는 여성, 전업주부보다 이혼 가능성 높아

일하는 여성이 전업주부보다 이혼할 가능성이 3배 이상 높으며 이는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높게 나타났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 인터넛이 ‘유럽사회학리뷰’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11일 보도했다.

영국의 중견 이혼전문 변호사인 매를린 스톤은 직업 활동이 결혼을 파격으로 이끄는 이유는 미스터이지만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여성의 결혼 생활이 불행할 경우 가정을 박차고 나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스튜어 변호사는 일하는 여성은 새로운 친구들과 새 파트너를 만드는 등 인생을 다시 시작할 능력에 더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면 15년간 집에 있던 여성들에게 일을 하라고 권한다면 여성들은 일종의 공포심을 느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3년 영국에서 이혼한 부부는 16만6천700쌍으로 전년에 비해 3.7% 증가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브리제 대학 연구팀은 또 다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직업을 가진 여성이 늘어나고 새로운 사고를 가진 남성들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여전히 전업주부가 될 것을 강요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들의 사회생활이 갈등과 경쟁을 유발하고 가정에서 남편들의 역할을 위협하며 이에 따라 남성들이 경제적으로 독립된 부인과 이혼하고 싶은 마음을 더 갖도록 만든다는 주장이다.

<연합뉴스 7.11>

북한의 음식

북한에서도 그 지역 특색에 맞게 각 지역별 유명한 특산음식이 있는데 생산되는 재료와 그 지방 날씨에 따라 요리법이 달리 발달된 것으로 보이며 각 지방별 전통음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잘 알려진 평양음식으로 평양냉면과 대동강 송어국이 있다.

평양냉면은 오래전부터 평양에서 만들어 먹던 국수로서 메밀로 만들며 고기국물에 동치미국을 섞어서 만든다. 대동강 송어국은 대동강에서 많이 잡히는 송어에 여러 가지 양념을 첨가하여 만든 것으로 맛이 있고 영양가도 높다. 이밖에도 평양온반, 평양쟁반국수, 평양어죽 등이 유명하다.

평안도 음식으로는 노치가 있는데 노치는 찹쌀이나 기장, 차조가루를 익반죽하여 엿기름가루를 넣고 삭혀서 지진 떡이다. 주로 명절음식으로 그 맛이 달고 시큼하며, 쫄깃하고 끈기가 있다. 풋강냉이로 만든 올챙이국수, 녹두지짐, 새우젓 등도 인기다.

양강도와 자강도는 높은 산간지대로서 배추농사가 힘들어 감으로 채소를 대신하는데 그래서 갓김치가 발달하였다. 갓김치는 향기롭고 시원하며, 오래두고 먹어도 물크러지지 않고 맛이 변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자강도는 감자가 많이 생산되어 감자국수, 감자떡, 당면 등 감자음식이 유명하다.



신선로



약밥

함경도에는 가자미 식해가 있는데 토막 낸 가자미에 양념을 섞어 만든 젓갈로 그 맛이 달고 시원하며 오랫동안 보관이 용이하다. 가자미 외에도 명태, 낙지, 문어, 은어 등으로도 식해를 담그며 감자음식, 고사리로 만든 음식도 많이 먹는다.

황해도에서는 해주비빔밥, 김치밥, 칼국수, 메밀국수, 녹두묵 등이 유명하며 도미국수, 송어찜, 더덕고추장구이 등이 있다.

개성은 고려시대의 수도였던 지역으로 이 지역의 요리는 매우 다양한데 보쌈김치, 편수, 설렁탕, 추어탕, 경단, 우메기(떡의 일종), 약밥, 신선로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이밖에도 개성의 미나리초대, 찹쌀고추장 등이 있으며 개성 인삼술, 홍삼술은 유명한 특산품으로 시장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에도 전통적인 특산음식이 많지만, 현재 식량난으로 일반주민들은 하루하루 끼니 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 이런 음식들은 그림의 떡으로 여겨지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사실상 배급제가 폐지되어 적은 월급으로 장마당에서 식량을 일일이 구입해야 하는데 노동자 평균 월급이 2,000원인데 비해 쌀 1kg가격이 거의 1,000원 가까이 하니 그 생활이 가히 짐작되고도 남는다. ■

장마철, 집안의 습기와 곰팡이를 제거하자

올 여름에도 예외 없이 장마가 찾아와 우리의 기분뿐만 아니라 집안 곳곳을 습하고 끈적거리게 하고 있다. 집안은 물론 가전제품에까지 침투해 있는 곰팡이는 보면 울상 짓게 만든다. 곰팡이는 각종 기관지염·알레르기·천식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곰팡이 원인인 습기부터 없애보자.

옷장과 이불장

장마철에 습기가 많이 차는 곳 중 하나가 옷장과 이불장이다.

장마철에는 습기제거제나 숯 등을 옷장 안에 넣어 옷장 속 습기를 제거하는데, 습기는 바닥부터 차 올라가므로 습기제거제를 둘 때는 옷장 아래쪽에 두어야 한다.

옷을 수납할 때는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대나무 바구니에 차곡차곡 넣어두면 좋다. 만약 의류에 곰팡이가 피었다면 곰팡이를 털어낸 후 표백제를 2백배로 희석한 물에 담가두었다가 세탁해 준다.

이불장 또한 마찬가지로 습기제거제를 두거나 신문지를 바닥에 깔아 이불을 넣어두면 좋다. 선풍기나 에어컨을 켤 때 옷장이나 이불장을 열어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가전제품

장마철 습기를 덜 차게 하려면 가전제품을 벽면에서 10cm정도 떼어 두도록 한다.

TV나 오디오는 TV의 뒤편과 오디오 장식장 내에 습기제거제를 넣어두는 것이 좋다. 특히 오디오의 경우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아두면 습기가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컴퓨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놓아둔다. 컴퓨터를 비롯한 가전제품 대부분 통풍구를 막아 온도를 상승시켜 고

장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커버를 씌우지 않도록 한다.

세탁기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뚜껑을 열어 두는 것이 좋고 3~4일에 한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사용해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습기를 제거하도록 한다.

현관

습기 찬 신발과 우산 때문에 악취가 날 경우 신발장 위에 허브 화분을 놓아두면 향기도 나고 악취도 제거할 수 있다. 숯을 신문지에 말아 신발장 속에 넣어두어도 효과적이다.

신발장에 곰팡이를 방지하려면 각 칸마다 신문지를 두 장씩 접어 바닥에 깔고 포장김에 들어있는 릴리카멜이나 말린 녹차잎을 넣어둔다.

빗물에 젖은 신발이나 우산을 빨리 건조시키려면 벽돌 위에 신발이나 우산을 올려 놓아보자. 벽돌 속으로 빗물이 스며들고 동시에 현관이 지저분해지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욕실

욕실은 햇볕도 잘 들지 않고 통풍도 잘 안되기 때문에 자주 곰팡이가 생긴다. 이곳은 곰팡이 전용세제로 구석구석 닦아주는 것이 좋다. 세면대와 같이 실리콘이 있는 부분은 락스를 희석해 닦아 곰팡이를 방지한다. 실리콘이 벗겨졌을 경우에는 방수용 실리콘을 발라주는 것이 좋다.

강사와 어느 부부 이야기

금요 오후반과 토요 반을 합반 한 것이 화근이었다.

내 강사 생활 15년에 먹칠하는 사건이 생겼으니 말이다.

나는 00문화 센터에서 댄스를 가르치는 강사다. 흔히들 뒤에서 자기들끼리는 춤 선생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렇지만 세상이 달라져도 한참 달라진 것이 분명하다. 이전 한다하는 문화센터에서는 모두 다 '댄스 교실'을 과목에 넣어 운영하고 있고 건전한 스포츠라고 까지 말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가 강사를 하고 있는 00문화센터는 댄스에 관련한 막강한 강사진과 전통을 자랑하는 문화 공간으로 어느 문화센터보다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나 있었다.

모던 댄스, 라틴 댄스, 스포츠 댄스, 나이트 댄스, 재즈 댄스, 벨리 댄스, 힙합 댄스, 차밍 댄스, 아르헨티나 탱고, 자이브, 블루스, 지터박(흔히 지루박이라 함) 등등 댄스 종류도 다양하다. 나는 그 중에 '소셜 댄스' 즉 사교 춤이라 불리우는 블루스와 지터박을 가르친다. 금요반과 토요 반을 지도하고 있다. 강좌는 대부분이 3개월 단위로 봄 강좌, 여름 강좌...하는 식으로 계절 강좌로 프로그램을 나눈다.

이번 사건(?)은 무사히 3개월을 다 끝내고 마지막 강좌 날에 벌어졌다.

"선생님, 종파티는 현장에 실습 가는 걸로 하죠. 삼 개월 동안 같고 닦았으니 무도장에 가서 실지로 해 보고 싶어요. 우리끼리 용기 없어서 못 가겠어요. 한 번만 데려가 주세요."

여자 수강생들이 훨씬 많은 금요 낮 반 아줌마들이 즐라대기 시작했다. 정원이 20명인데 16명이 여자였고 단지 4명만이 남자였다. 수업 시간 중 짝짓기를 하려 해도 한 남자가 네 명의 여자들을 잡아 주어야 하는 애로 사항이 뒤따랐다.

"남녀 짝이 턱없이 모자라니 현장에 한 번 가진 가야할 것 같죠?"

내 말에 여자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올렸다.

"선생님, 어디서 남자들 좀 빌려 올 때 없을까요?"

한 아줌마가 대답하라는 표정을 지으며 농담처럼 내게 물었다. 짝이 있어야만 출 수 있는 춤은 항상 남녀의 비율이 문제였다. 그 순간 내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럼 말이죠, 이렇게 합시다. 토요 반은 여자가 세 명밖에 없어서 고민이니가 합동으로 종 파티를 하면 어떻겠어요?"

또 박수와 과성이 터져 나왔다. 이렇게 해서 금요 반 아줌마들과 토요 반 아저씨들을 합동으로 엮어 무도장으로 가게 되었다. 거기까지는 좋았다. 토



요 반 수업이 끝나는 대로 다 함께 문화센터에서 그리 멀지 않은 무도장으로 갔고 정성 들여 치장을 한 금요 반 아줌마들은 알려준 무도장에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 나는 같이 간 토요 반 아저씨들과 금요 반 아줌마들을 단체로 인사 시키려고 다가갔다.

"아주 멋지게들 하고 오셨네. 자, 개인적인 인사는 각자들 알아서 하시고 이쪽은 금요 반이고 이 쪽은 토요 반인데 내가 똑같은 진도로 가르쳤으니 ..."

이때 여자의 '어머' 하는 소리와 남자의 '에' 하는 소리가 동시에 들렸고 곧바로 여자가 무도장을 뛰쳐나갔다. 뒤 이어 남자도 달려 나갔다. 일행의 시선이 모두 그들에게로 집중되었고 두 남녀가 사라지자 웅성웅성 소란이 일었다.

"그럼 혹시 저 사람들 부부 아니야?"

한 여자가 손바닥을 마주치며 사태를 짐작하는 발언을 하자 모두들 '그런가보다.' 하며 동조하기 시작했다.

"맞는가본데... 서로 거짓말 하고 몰래 센터에 나오다가 여기서 딱 마주친 거야."

남자들도 장단을 맞추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나는 잠시 그들의 동요에 말을 끊었다가 수습에 나섰다. 어쨌든 여기까지 온 사람들 모두를 김새게 할 수는 없었다. 뛰쳐나간 그들은 이차적인 문제로 미루어 두고 우선 일행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만 했다.

"자, 자, 서로 마음에 드는 파트너끼리 한 번 나가 봐요. 계속 한 사람하고만 추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여러 사람하고 추는 게 좋고 용기가 생기면 우리 수강생이 아닌 딴 사람들 하고 춰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시작들 해요."

그들이 하나, 둘 짝을 지어 춤을 추기 시작하자 나는 슬며시 무도장을 나왔다. 혹시 무도장을 나간 그 부부가 근처 어디에 있지 않을까 싶어서였다. 무도장 입구를 돌아 주차장 쪽으로 나가니 예상대로 그들은 자동차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가 나의 발목을 잡았다.

"어쨌든 차를 타라니까."

"싫어요. 왜 내 차를 두고 자꾸 당신 차를 타래? 각자 자기 차타고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니까요."

"집에 가면 애들도 있고 말하기 나쁘잖아. 그러니 여기서 이야기 끝내고 가자니까."

"이이가 뭐가 겁나서 이래?"

"똑같은 입장에 겁나긴 뭐가 겁나? 여자가 살림은 안 하고 춤바람 난 게 자랑이야?"

"춤바람이라니? 난 그저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거짓말은 안 했어. 그런데 당신은 뭐? 회사 간부 미팅, 동창 모임, 결혼식, 오만가지 핑계 다 대고 별별 거짓말을 다 한 게 누군데?"

그들의 언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다. 나는 그들 앞에 나서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잠시 망설였다. 그들이 나에게 '이렇게 건전한 스포츠인지 몰랐어요.'라고 말했던 것처럼 생각도 그러하다면 저들은 왜 저렇게 다투어야 하는 걸까? 아무래도 싸움을 말리기보다는 그것부터 물어봐야 할 것 같았다. <노수민 / 작가>



경희대 국어국문과 졸업했고, 1969년 제 12회 경희인 문화상 소설부문 수상으로 등단했다. 1971년 제 13회 경희문화예술상 수상하고, <고독한 파수꾼>으로 1979년 중앙일보 1회 문예대상 장편소설부문을 수상하면서 태국어로 번역되어 출판되기도 했다. 그 외 1994년 한겨레 문학상 수상(불바다-일본어 역), 2002년 한국 소설문학상(광대들의 들판에 비는 오지 않는다)을 수상했다. 작품으로는 <황홀한 城>, <위험한 戀歌>, <아무도 없었던 겨울> 등의 장편소설과 단편소설 <달래를 찾습니다>, <미완의 사랑> 등 많은 작품을 출간했다.

색깔로 먹는다

- 화이트 푸드(White Food) -

웰빙(참살이) 열풍이 우리 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있다. 특정한 집단의 특별한 생활 방식이 아니. 누구나 일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의 한 방법이 되었다. 이런 '웰빙' 바람 중에서도 최대 관심사는 바로 건강이다. 오행론(五行論)의 원리에 따라 식품의 색깔이 우리 몸의 각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특정 부분이 허약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색깔 음식을 골라먹는 재미와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게 되었다.

◆ 폐나 기관지 약한 사람에게 효과적, 저항력 길러주고 폐경 여성에게 좋아

'삼백(三白)'이라 하여 건강에 이롭지 않은 흰색 식품도 있지만,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몸에 꼭 필요한 흰색 식품도 많다.

흰색은 금(金)에 해당되며 폐, 대장, 코에 연결된다. 폐나 기관지가 약한 사람에게 도움이 주기 때문에 겨울에 배를 꿀과 함께 끓여 먹는 민간요법도 이런 이유에서 생기게 된 것이다.

흰색 식품에 있는 플라보노이드 계열 안토크산틴 색소는 체내 산화작용을 억제하여 유해물질을 체외로 배출시키고, 몸 속에 들어오는 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준다.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어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을 주며, 심장병을 예방하고 폐경 여성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다.

◆ 흰색 식품의 종류와 그 효과



버섯

성인병 예방하고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버섯은 각종 성인병과 암을 예방하는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가 많다.

의학서인 「동의보감」에 의하면 '버섯은 기운을 돋워주며 식욕을 증진시키고 위장 기능을 튼튼하게 한다. 또한 시력을 좋게 하며 안색을 밝게 해준다.'며 버섯을 효능을 강조했다.

고단백 저칼로리의 다이어트 식품으로 고혈압과 동맥경화, 심장병과 같은 성인병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증진시켜 항암 효과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섬유소가 많이 들어 있어 변비 예방에 좋다. 조리할 때는 양념을 되도록 강하게 하지 않아야 은은한 향기를 가진 버섯의 풍미를 제대로 살릴 수 있다고 한다.



양파

피를 맑게 해 성인병 예방하고,
칼슘 보충과 불면증에 효과

마늘과 양파 등에 함유되어 있는 알라신은 강력한 항암작용을 하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려주어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예방한다. 달콤한 맛을 가진 양파는 피를 맑게 해 주고, 콜레스테롤을 분해하거나 혈압을 내리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 성인병 예방에 효능이 있어 하루에 하나 정도(50g)만 먹어도 효과적이다.

최근에는 양파가 현저한 발암 억제 작용을 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양파에 들어 있는 비타민A가 정자의 생성을 돕고, 비타민B1은 성 활동에 관여하는 부교감신경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남자의 정력 강화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양파에는 칼슘과 철분도 풍부하게 들어 있어 뼈를 형성하는 성장호르몬과 같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한창 자라는 어린이와 칼슘 부족으로 병을 얻기 쉬운 노인에게 좋다. 또한 지방이 적고 야채로서는 단백질이 많은 편이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며, 자궁수축에 의한 분만 촉진에도 효과가 있어 임산부에게도 좋다. 불면증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양파 반쪽을 썰어 머리맡에 두면 쉽게 잠들 수 있다고 한다.



무

비타민의 보고로 소화 돕고,
고혈압과 암 예방에 효과적

무에는 사과보다 10배나 많은 비타민 C가 있다고 한다. 무청에는 비타민과 칼슘 등 더 많은 영양 성분이 들어 있다.

무즙은 호흡기 질환에 좋고, 무는 아밀라제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소화 작용을 도와줘 소화제로 사용되어 왔다. 또한 식이섬유와 수분이 풍부해 체내 노폐물의 배설을 촉진시켜 변비를 예방해줘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다.

또한, 무는 갈증을 없애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당뇨 환자가 무즙을 상복하면 갈증을 없애는데 도움이 된다. 무의 아스파라긴산은 숙취 해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갖가지의 약효로 고혈압 예방에 좋을 뿐만 아니라, 암 예방에도 효능이 있음이 밝혀져 더욱 인기 있는 식품이 되었다.



배

기침과 천식 해소에 탁월하고,
당뇨병, 고혈압 치료 및 항암작용

배가 민간요법에서 기침과 천식해소 등에 효험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지만, 최근 실험을 통해 배에서 추출한 식이섬유인 텍틴(Tectim)과 페놀릭 컴파운드(Phenolic Compound) 물질이 천식과 당뇨, 혈압강화에 큰 효과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에는 소화효소가 많이 들어있어 육식 후 디저트로 많이 먹고, 특히 쇠고기를 먹고 체한 경우 배즙을 마시면 좋다. 또한 알콜 해독과 변비에 효과가 있다.

다만, 배는 찬 성질이 있는 식품으로 위장이 약한 사람이나 허약자, 임산부는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

한여름의 열기를 시원한 냉국과 함께

저녁 식탁에 빠질 수 없는 국 요리. 매일 다른 국을 끓여내는 것도 주부들에겐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다. 값싸고 쉬운 재료를 이용해 시원한 냉국을 만들어 여름철 식구들의 입맛을 살려주세요.



애호박냉국

재료> 애호박 1개, 녹말가루 ½컵, 붉은 고추 1개, 실파 2대, 다진 파 ½큰술, 다진 마늘 1작은술, 통깨 1작은술, 참기름 ½큰술, 국간장 1큰술, 식초 ½큰술, 설탕 1작은술, 소금 약간, 생수 3½컵

〈만드는 법〉

- ① 애호박은 길이로 반을 가른 후 반달 모양으로 얇게 저며 썰어 소금을 뿌려 살짝 절인 다음 물기를 가볍게 눌러 찐다.
- ② ①의 애호박에 녹말가루를 묻혀 끓는 물에 넣어 동동 떠오를 때까지 데치고 얼음물에 담가 차게 식힌다.
- ③ 붉은 고추와 실파는 송송 썰고 데친 애호박에 다진 파, 다진 마늘, 통깨, 참기름, 소금을

넣고 가볍게 무친다.

- ④ 생수에 국간장, 식초, 설탕, 소금을 넣어 간을 맞춘 다음 차게 두었다가 양념한 애호박 위에 붓고 고추와 실파를 얹어 낸다.

연두부냉국

재료> 연두부 1모, 오이 40g, 송송 썬 청·홍고추 약간씩, 썬약간, 통깨 ½작은술, 냉국국물(다시마물 2컵, 간장 1큰술, 소금 약간, 맛술 ½큰술, 식초 1작은술), 얼음 적당량

〈만드는 법〉

- ① 오이는 씻은 다음



껍질을 벗겨내고 얇게 채썬다.

- ② 분량의 재료를 섞어 냉국국물을 만든 다음 냉장고에 넣는다.

- ③ 그릇에 얼음을 깔고 연두부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담는다.

- ④ ③의 연두부 위에 채썬 오이와 송송 썬 청·홍고추, 썬약을 올린다.

- ⑤ ④에 차게 준비한 냉국국물을 붓고 통깨를 뿌려 낸다.

참외냉국



재료> 참외 ½개, 오이 ½개, 소금 약간, 실파 채 약간, 냉국국물(생수 2컵, 간장 ½큰술, 설탕 1큰술, 식초 1큰술, 소금), 무침양념(간장 약간, 짭개 썬 실고추 약간, 깨소금 약간, 곱게 다진 마늘 약간, 고운 고춧가루 약간)

〈만드는 법〉

- ① 분량의 재료를 섞어 냉국국물을 만들어 차게 보관한다.
- ② 참외는 반으로 갈라 속을 긁어내고 얇게 썰어 소금과 설탕에 넣고 절인다.
- ③ 오이는 껍질을 벗긴 후 반으로 갈라 속을 긁어내고 어슷어슷 길고 얇게 썰어 약간의 소금을 넣어 절인다.
- ④ 분량의 재료를 섞어 무침양념을 만든다.
- ⑤ 절인 참외와 오이는 물기를 짰 후 만들어

둔 무침양념으로 버무려 무쳐 담는다.

- ⑥ 실파채를 섞어 담고 차갑게 만들어 둔 냉국국물을 부어 낸다.

※ 참외와 오이는 무침양념으로 미리 버무려 두어야 간이 골고루 배어 맛이 있다. 물기를 제거한 후 무침양념에 골고루 버무린다.

가지냉국

재료> 가지 2개, 송송 썬 대파 1큰술, 다시마물 3컵, 소금·설탕·식초 약간씩, 무침양념(고춧가루 1작은술, 마늘즙 ½큰술, 간장 1큰술, 식초 1큰술, 설탕 1큰술, 깨소금 1작은술, 참기름 약간), 얼음 적당량

〈만드는 법〉

- ① 가지는 씻어 5cm 길이로 자른 다음 내열 용기에 담아 전자레인지에서 3분 정도 익힌다.
- ② 익힌 가지는 1cm 굵기로 찢은 다음 찬물에 헹구 건져 물기를 찐다.
- ③ ②의 가지에 분량의 무침양념을 넣고 버무린 다음 차게 식힌 다시마물을 붓는다.
- ④ ③에 소금을 넣어 간을 맞추고 입맛에 따라 식초와 설탕을 넣는다.
- ⑤ 가지냉국은 상에 내기 직전 송송 썬 대파를 뿌리고 얼음을 띄워낸다.





내 재산은 내 노후를 위해 쓰자! ‘역모기지론’

아사히신문은 93년 이후 일본에서 자취를 감췄던 ‘역모기지론’이 12년 만에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최근 소개했다. 우리나라도 일부 은행이 90년대 중반에 도입했으나, 주요 고객인 노년층의 주택 소유에 대한 집착이 워낙 강해 판매실적이 부진하자 결국 중단되고 말았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역모기지론’이 다시 선보이고 있다.

역모기지론?

집을 빼고는 여유재산이 없어 매월 생활비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소유한 집을 담보로 잡히고 매월 연금 형태로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는 이미 보편화됐다. 즉,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 집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만기에 대출금을 일시에 갚는 방식으로 본인 명의로 주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60세로 정년퇴직한 사람이 시가 3억원인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역모기지론으로 10년간 대출받으면 매월 60만원 안팎을 생활비로 받아쓰고 만기 때 원리금 1억원을 갚는 방식이다.

▶ 역모기지론의 장점

**자산 활용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 유지,
저렴한 이자비용과 양도소득세 면제받아**

역모기지론의 가장 큰 장점은 노인층의 자산을 활용하기 때문에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반면 일정한 수입원을 가질 수 있어 사적인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녀 교육비, 주택 중도금 마련 등 일정기간 동안 지출이 많은 40~50대 연령층에게는 저렴한 이자비용으로 생활에 도움을 줄 수도 있어 현재의 주거생활을 유지

하면서 안정적인 고정수입이 확보되어 주택 상승 차익을 추구할 수 있고 주택처분에 의한 재투자위험이 적다는 것이다.

현재 1가구 1주택을 담보로 역모기지론을 만기까지 받은 후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 역모기지론의 단점

**홍보강화와 세제혜택 확대 시급,
만기 상환 이후 삶 꼼꼼히 계획해야**

현재 역모기지론을 취급하는 기관이 3곳(신한·조흥은행, 흥국생명)에 불과하고, 대출받는 사람들 대부분이 노인층임을 감안할 때 세제혜택도 미흡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또한, 만기 상환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만기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근저당권을 행사해 담보로 제공한 집을 경매처분하고 대출금을 상환한 차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여생을 보낼 곳이 막막해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저출산 현상과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주택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바뀌고 자녀 상속보다 노년 자신의 삶의 질을 중시하고 있다. 정부가 역모기지론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장단점을 비교하며 자신의 노후를 설계해보자.

아름답고 건강한 노년의 삶을 위한 식생활 지침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명제가 되고 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오래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한 시대가 온 것이다. 노인의 수명을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 영양은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수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에 근거, 우리나라 노인들의 식생활 지침을 살펴보기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5가지 기본원칙을 가지고 노인들을 위한 식생활 지침을 제정하였다.

- ① 충분한 양의 식사
- ② 소화능력을 고려하여 조금씩, 자주 먹을 것
- ③ 다양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부식과 간식을 강조
- ④ 수분섭취 강조
- ⑤ 식품위생을 강조하였다.

◆ 채소반찬, 고기와 생선, 계란, 콩 등을 매일 먹자

일부 노인들은 아직도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질이 좋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며, 채소 반찬을 통한 다양한 영양을 섭취해야 한다.

◆ 우유나 두유, 제철과일을 많이 먹을 것

노인에게서 특히 부족한 칼슘과 비타민 B2를 보충해줄 수 있고, 과일 섭취를 통하여 비타민, 무기질, 섬유소를 섭취한다.

◆ 짠 음식을 피하고, 싱겁게 먹자

우리나라 노인들은 젊은 사람에 비해 짜게 먹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혈압이 높은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므로 장아찌, 젓갈의 섭취를 줄이고, 국이나 찌개의 국물을

적게 먹음으로써 염분 섭취를 줄인다.

◆ 알맞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할 것

노인들은 식욕부진과 운동 부족으로 심각한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식욕을 증진시키고,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다.

◆ 술을 줄이고 물을 많이 마시자

지나친 음주는 삼가고, 노인들에게는 탈수 현상이 자주 나타나므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한다.

◆ 세끼 식사와 간식을 규칙적으로, 조금씩 자주 먹는다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하고, 노인들은 한꺼번에 많이 먹을 수 없으므로 조금씩 자주 먹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간식을 식사의 일부로 계획하여 섭취하도록 한다.

◆ 음식은 먹을 만큼 준비하고, 오래된 것은 먹지 말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우리나라 노인들은 남은 음식을 버리지 않고 조금 오래된 것도 먹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래된 것을 먹으면 건강에 위해하므로 음식은 조금씩 장만하고, 위생적으로 저장하도록 한다.

이달의 읽을 만한 책

장국영이 죽었다고? 김경옥 / 문학과지성사



지난 세기 말, 중국의 영화감독 왕가위는 새로운 영화문법과 영상 그리고 정서를 보여주는 '중경삼림', '아비정전', '해피투게더' 등으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까지 매료시켰다. 그의 영화는 새로운 문명 속에서 성장한 젊은이들의 알 수 없는 정서를 잘 반영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대중문화적 트렌드로 양식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지난 세기말 정치적 열정에서 벗어난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그것은 새로운 정서적 패션이 되어 심리적 일체감을 제공했다.

1990년대 초에 등단한 김경옥은 소위 왕가위 세대의 정서를 독자적인 서사공간과 문체로 소설화하는데 성공한 작가라고 할 수 있다. 그는 90년대 이후, 새로운 문명적 조건 속에서 정치적 열정으로부터 벗어나 새롭게 자기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주요한 작가 중의 한명이다. 그리고 『장국영이 죽었다고?』라는 새로운 감각의 제목이 붙은 소설집은 그의 세 번째 창작집이다.

『장국영이 죽었다고?』에서도 왕가위 세대의 방향과 허무와 페이스는 문학적으로 비교적 잘 형상화되어 있다. 특히 대중문화의 압도적 세력 속에 성장한 세대로서, 또 전혀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 갇힌 세대로서, 그것에 완전히 몰입하지 못하고 어떤 허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젊은이들의 내면이 건조하게 펼쳐진다. 그래서 김경옥의 소설은 대중문화적이면서 반 대중문화적이고, 네티즌적이면서 또 반 네티즌적이다.

〈추천위원 : 이남호(고려대 국어교육학과 교수)〉

신데렐라 천년의 여행 주경철 / 산처럼



예쁘고 착한 신데렐라가 질투하는 계모와 계모의 딸들의 계락을 물리치고 왕자비가 된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신데렐라 이야기들은 전형적으로 착한 여자 콤플렉스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신데렐라 천년의 여행』에 따르면 원래 신데렐라는 예쁘고 착한

힘으로 왕자를 만나 행복하게 산다는 신분상승 스토리가 아니다.

신데렐라 이야기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중동, 이집트, 유럽 등지에서 천 여 편 정도가 수집된다.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집단 무의식이다.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신데렐라 천년의 여행』을 기획한 주경철의 문제의식이다. 그는 신데렐라 이야기를 관통하는 중요한 특징을 신발 한 짝의 상실로 본다. 신데렐라의 키워드들, 즉 '신발의 상실'과 '여행'과 '도움을 주는 동물'과 '왕자와의 결혼' 등을 나열해보면 신데렐라는 인간세계와 저승세계를 오가는 존재, 즉 샤먼이었다는 것이다.

한편에서 신데렐라의 이야기는 소녀에서 여인이 되어야 하는 여성이 어떤 통과의를 거쳐야 하는 지를 비밀스럽게 보여주는 작품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추천위원 : 이주향(수원대 교양학부 교수)〉

도깨비와 범벅 장수 이상호 글, 한병호 그림 / 국민서관



도깨비와 범벅 장수, 그림과 구성이 참 독특한 책이다. 옛이야기 그림책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세로로 글을 실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도록 했다.

이 책은 가난한 범벅 장수와 호박범벅 맛에 빠진 도깨비들이 벌이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호박범벅을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은 후 항아리 가득 금돈과 은돈을 채워주는 도깨비들.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범벅 장수와 같은 행운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도깨비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참 구수하다. 우리네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듣고 자라서 그런지 우리 정서와도 잘 어울린다. 소박하지만 힘있는 민중들의 바람을 담고 있다. 한병호의 도깨비 그림이 선이 굵은 글씨와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추천위원 : 김자연(전주대 교양학부 교수)〉

지부소식

전국 16개 시·도 지부 234개 시·군·구 지회

부산광역시지부

경제교육 강의

시지부

6월 2일과 14일 양일간 송도초등학교와 남부민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의 금융과 경제에 대한 이해력을 돕고자 경제교육을 실시했다.

김기묘 부산시지부 회장은 용돈관리 방법 및 구입 물건의 피해사례와 예방법 등 실생활경제와 관련된 강의 내용을 통해 어려운 경제개념보다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경제주체로 성장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다.



부산여성대회

시지부

지난 6월 3일 부산시청 1층에서 부산여성대회가 개최되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빈곤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앞장서고, 출산을 제고와 성폭력 및 성매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며 과학의식을 고취해 전 국민의 생활을 과학화 할 것을 결의한 이번 대회에 회원들도 참석해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낙동강 워터투어

시지부

6월 13일 회원들이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권 관리단을 방문하여 낙동강 하구언에 대한 설명을 듣고 물문학관을 견학했다.

올 6월에 개관한 전망대에서 을숙도 전경을 둘러보고 안정된 용수공급과 치수를 목적으로 한 낙동강 하구둑

건설 등 부산권 관리단이 하는 일을 비롯해 수질개선과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모습을 통해 물의 소중함을 알 수 있었다.



대구광역시지부

상수도 수질검사 및 체험투어

시지부

지난 6월 2일 회원 15명이 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 및 시민들과 함께 대구 시내에 위치한 수돗물관련 시설인 정수장과 수질검사소를 방문해 원수 취수, 수질검사 및 가정 음용수 취수 검사 의뢰 등의 과정을 직접 체험하면서 수돗물 수질검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제4회 대구음식박람회

시지부

향토음식 발굴과 음식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2005년 대구음식박람회가 6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EXCO (엑스코) 3층 전시장 및 야외광장에서 열렸다. '세계 속의 우리음식'이란 주제의 전시회와 '한방과 음식의 새로운 만남'을 주제로 한 품평회를 비롯해 세계 음식관, 부대행사 등이 개최된 행사에 회원 12명이 도우미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시지부

6월 20일~7월 5일까지 회원 26명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하계절 성수식품인 면류와 공제품 및 단체급식소 식품을 수거해 위생 검사와 함께 지도 단속하는 식품위생감시원으로 활동했다.

인천광역시지부

릴레이식 사랑 나눔 봉사활동

남동구지회, 서구지회, 남구지회, 부평구지회, 계양구지회, 강화지회

남동구지회는 6월 3일 회원 6명이 관내 위치한 노인복지회관을 찾아가 배식 봉사활동을 했다. 18일에는 독거

노인과 소년소녀가장에게 쌀을 전달하면서 이웃의 정을 나누었다.

서구지회는 13일 회원 7명이 석남동에 위치한 노인복지회관을 찾아가 중식봉사활동을 했다.

남구지회는 첫째, 셋째 목요일인 2일과 16일에 주안 5동 길거리 청소를 실시했다.

부평구지회는 20일 부평복지관에 정성을 담은 밑반찬을 전달했다.

계양구지회는 4일~5일 이틀간 회원 20명이 관내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50가구를 방문 김치를 담가주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9일에는 회원 10명이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300인분의 중식제공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강화지회는 15일 회원 10명이 말년을 외롭게 보내시는 노인 150분에게 무료급식 봉사활동에 전개했다.

광주광역시지부

농촌체험 및 생산농가 견학

시지부

지난 6월 8일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하는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운동의 일환으로 전남 담양군 수북면 황금리 늘푸른 농가 외 인근 농가를 회원들이 방문했다.

인지도 높은 친환경 유기 농산물이 생산되는 담양군 시설하우스에서 방울 토마토, 메론, 고추, 황금토마토 등을 회원들이 직접 수확하고 직거래 구입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었고, 더불어 농가는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제13회 광주여성대회 참석

시지부

지난 6월 16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제 13회 광주여성대회가 열렸다.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제정된 여성주간 행사로 열린 이번 대회에 회원들이 참석해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음식물쓰레기 활용을 통한 광주 살리기

시지부

6월 24일 KT 3층 세미나실에서 회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식물쓰레기 활용을 통한 광주 살리기'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주부들에게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실천이 친환경조성의 지름길임을 알려주고 동시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공장 견학과 교육 및 가드캠페인을 실시해 깨끗한 광주 이미지 구축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대전광역시지부

스쿨존, 블루존 실태조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지부

지난 6월 7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School zone, Blue zone, Safety zone 등을 중심으로 실시할 환경실태조사



를 위해 우선 자원 봉사 인력 90명을 대상으로 '스쿨존, 블루존의 바람직한 환경조성 방안', '실태조사 기법', '청소년 안전권 확보방안' 등을 주제로 충남지방경찰청 유완종 경사와 목원대학교 최정우 교수의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유통업계와의 간담회

시지부

최근 대형유통업계가 대전 지역에 대거 진출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제품의 용량 및 규격이 모두 달라 가격 비교 구매가 어려워 빠른 단위가격 표시제 정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전시부는 6월 9일~11일까지 대전지역 유통업계 15곳을 대상으로 단위가격 표시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21일 시청 5층 창의실에서 관련학과 교수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한 유통업체 11개 대표자 및 본회 소비자모니터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간담회



를 열어 단위가격표시 의무화를 강조하고, 유통업체에 계도활동의 필요성과 적극적 동참을 촉구했다.

울산광역시지부

환경의 날 자전거 캠페인 및 태화강 정화활동

시지부

지난 6월 9일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주부교실 그린여성자전거교실 회원 100명이 울산대공원을 출발하여 시청 광장에서 환경보전 캠페인 홍보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거리 캠페인을 전개한 후 태화강 정화활동을 펼쳤다.



교육시설에서의 건축물 안전실태 조사

시지부

지난 6월 20일~22일 관내 위치한 유치원 20곳과 초등학교 20곳을 대상으로 모니터 10명이 건축물 안전실태 조사를 실시해 교육현장에서의 안전관

련 시설을 관리하는 방법 및 안전관리 담당자의 안전의식 수준 점검으로 안전관리 가동 체계 확립을 도모하고자 했다.

환경기초시설 견학 및 생태계 체험활동 시지부

6월 20일과 24일 이틀 동안 명덕초등학교와 울산초등학교에서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음식물류 분리배출 요령 및 재활용에 대한 교육을 통해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식교육을 실시한 후, 환경시설인 성암소각장, SK(주), 회야정수장을 견학하며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고, 더불어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관리와 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 탐사대 탐사활동 시지부

6월 25일 척과 작천정 및 대암담 부근에서 회원과 탐사대 회원들 60여명

이 어류 및 수서곤충 조사활동을 실시했다. 직접 수서 곤충의 특징을 관찰하면서 생태 보전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던 보람된 시간이었다.



봉사활동 시지부

6월 22일 회원 10명이 지체 장애인 지시시설인 혜진원을 방문해 몸이 불편한 장애아동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목욕과 주변청소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왔다.

경기도지부

제4기 소비자 아카데미 실시 수원시지회

수원시지회는 6월 1일~10월 10일까지 매주 수요일 팔달문 고객지원센터 강의실에서 일반 시민과 모니터 요원 3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아카데미를 운영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역할과 기본 권리, 합리적인 지출과 신용관리, 금융 상품의 선택과 투자, 국내외 물가 동향 및 경제 뉴스 읽기, 소비자 보호법, 특수 판매 관련 법률 및 식품의 위해 요소와 안전에 관한 법령 등에 대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총 7주간의 강의를 통해 체계적인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노인 소비자 교육 수원시지회

6월 20일 정자동 동신아파트 노인정을 방문해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식품, 의료용품 등 무작위 사기성 판매행위로 인한 노인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고, 정성을 모은 점심식사 대접으로 경노사상을 실천했다.

예절교육 실시 용인시지회

지난 6월 20일 이다의 숲에서 회원 30명이 모여 전통 혼례 예절에 관한 교육과 꽃감으로 만든 영양 다과상 차리는 방법 등에 관한 강의를 듣고,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생활화해 인간의 기본 도리인 도덕과 예절이 상실되어가는 현대사회에 예절바른 생활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건강문화를 위한 시민 예절 교육 광명시지회



6월 23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청직원 및 공익 요원 등을 대상으로 예절 교육을 실시했다.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 도리와 규범을 익혀 시민들에게 예절을 숭선수범해 올바른 시민 사회를 이끌어 줄 것을 부탁했다.

강원도지부

자전거타기 홍보와 안전교육 도지부

정부는 최근 고유가 추세와 경기불황 등을 고려해 에너지 절약운동의 일환으로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에 도지부는 6월 21일과 24일 삼천동 자전거 운동장에서 회원 20명이 남춘천 중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했고, 건강·에너지절약·교통문제에 공해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이 가능한 자전거타기운동 홍보를 벌이며 자전거 타기 생활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6·15 공동선언' 5주년 기념 통일맞이 자전거 큰 잔치

원주시

6월 13일 원주 종합운동장에서 회원 20명이 「'6·15 공동선언' 5주년을 기념하는 통일맞이 자전거 큰 잔치」 행사에 참여했다. 총 500여명이 모인 이날 행사는 통일이 되면 금강산과 백두산을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평화적 통일을 기원했다.

가정문패 달아주기

태백시

지난 6월 9일 여성회관에서 회원 15명이 50세대에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전달하고자 문패를 만들어 전달했다.

단오제 행사

강릉시

중요 무형문화재 13호인 강릉 단오제가 남대천 단오장에서 회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6월 9일을 시작으로 그 막을 올렸다.

특히 이번 단오제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어 그 의미가 더욱 컸다. 강릉 관노가면극을 비롯한 진주검무 등 다양한 전국 각지의 민속이 잇따라 공연되었다. 창포 머리감기와 수리취떡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된 이번 행사

에 회원들은 행사장 안내 도우미와 음료 제공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외국인 주부 합동결혼식

속초시

지난 7일 동명동 이화예식장에서 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시작장례를 가지고 있는 필리핀 주부를 비롯한 외국인 합동결혼식을 올려주었다. 생활이 어려워 결혼식을 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신랑신부에서 정식 혼인의 예를 통해 화목한 가정을 꾸미어 줄 것을 당부하고 격려했다.

충청북도지부

양성평등교육 실시

도지부

도지부는 5월 27일~6월 21일(5일 동안) 각 유치원을 방문해 50~100여 명의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6월 13~14일에는 초·중등학교학생 500~1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차별의식 개선을 위해 '양성평등 릴레이 교육'을 실시했다.

실생활에서의 성차별적인 사례 등 청소년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 교육을 통해 참석했던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양성평등에 대한 개념과 의식을 자각할 수 있도록 산교

육의 장을 마련했다.

쓰레기분리수거 교육

영동지회

인구의 증가로 인해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짐은 물론이고 산업쓰레기와 생활쓰레기가 더욱 늘어나고 있어 지구 환경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환경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6월 7일 문화원에서 회원 3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릴레이식 사랑 나눔 실천

제천지회, 괴산지회, 옥천지회, 충주지회

제천지회의 조직 훈련부가 6월 10일과 24일 관내 위치한 재가가정을 방문하여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들어주고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의 정을 전하고자 했다.

괴산지회는 6월 2일 회원 4명이 목욕수혜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목욕봉사활동을 했고, 7일에는 회원 5명이 청천재활의 집을 방문해 밑반찬을 전했고, 22일은 괴산군 보건소를 초청노인병원 남미숙 간호과장과 회원 2명이 함께 찾아가 치매예방을 위한 올바른 자세 교육을 실시하고 왔다.

옥천지회는 6월 9일 회원 10명이 안

내면 화학리에 위치한 복숭아재배 농가를 방문하고, 22일에는 회원 30명이 군세면 증설리에 위치한 포도재배 농가를 방문해 바쁜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왔다.

충주지회는 10일 쌍둥이 체육관 앞에서 회원 5명이 '사랑의 밥 한 그릇 나누기' 행사에 참여했다.

소비자의식교육

충주지회

6월 13일 충주직업훈련전문교양강습실에서 회원 56명을 대상으로 소비자의식교육을 실시했다.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생활설계와 가게관리 및 상품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소비자 역할과 윤리의식을 강조했다.

충청남도지부

축산물안전성확보와 소비촉진을 위한 결의대회

도지부

지난 6월 9일 칠갑산 살레호텔에서 회원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물 안전성 확보와 소비촉진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우리 축산물을 애용하는 소비자로서 품질 경쟁력 강화와 고품질 친환경 축산물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소비에 앞장서서 친환경 축산농가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이후 한국수자원연구원 윤재홍님이 '물은 생명이다'란 주제로 물 교육을 실시해 소비자들에게 물 절약 실천과 함께 수질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교육

도지부

6월 9일 오후 1시 칠갑산 살레 호텔에서 회원 200명을 대상으로 공주대학교 경제학과 김덕수 교수를 초빙해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 교육을 실시했다.

주부들이 자녀들에게 소비의 중요성 및 물가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줄



것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경제상식으로 건전한 가정경제를 이끌어 나가 줄 것을 당부했다.

전라북도지부

친환경 축산우수농가 현장견학 및 직거래

도지부

6월 10일 익산시 망성면 어량리에 위치한 축산우수농가 <하림>을 임원을 비롯한 회원 및 일반인 45명이 방문해 축산물 원산지 표시와 등급 및 품질평가기준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친환경 축산물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더불어 물품을 구입해 친환경 축산농가의 발전과 소비촉진 도모에 앞장서기로 했다.



거리질서캠페인

도지부

6월 13일과 20일 전주 구 한일은행 앞 사거리에서 회원 10명이 프래카드,

피켓 등을 들고 거리캠페인을 전개하며 차량정지선 지키기와 신호등 지키기 계도 활동을 펼쳤다.

자전거안전교육 및 에너지절약 캠페인

정읍시지회

6월 23일 정읍초등학교 대강당과 운동장에서 학생과 회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경찰서 이영주 교통과장의 자전거안전교육이 있었다.

에너지절약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전거 타기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신호 지키기와 교차로 바로 건너기 등 자전거 운전 시 필수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자연보호을 위한 봉사활동

고창군지회, 무주군지회

고창군지회는 지난 6월 21일 고창군 선운산 주변을 회원 12명이 등산로 지키기 및 쓰레기 줍기를 하는 등 깨끗한 자연을 지키는데 앞장섰다.

무주군지회는 6월 4일~11일까지 무주공설운동장에서 회원 12명이 <웰빙새싹> 판매자원봉사로 씨앗판매 도우미로 봉사했다.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김제시지회, 부안군지회

김제시지회는 6월 17일 회원 8명이

백구면 포도원을 방문하여 포도따기 작업을 했고, 부안군지회는 16일 회원 13명이 행안면 삼간리에 위치한 농가를 방문해 바쁜 농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왔다.



전라남도지부

제10회 환경그림 그리기대회 도지부

6월 18일 나주시 남산공원에서 제10회 환경그림 그리기대회를 개최했다. 인간에 의해 훼손되고 오염된 환경을 정화하고 다시 살려 보호하려는 환경보전 실천의식 확산을 위한 이번



대회는 전라남도 내 초등학교 1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대상(전라남도교육감상)에는 나주 중앙초등학교 서원빈 학생이 수상하였고 기관단체장상을 포함해 74명의 어린이들에게 시상하였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 도지부

6월 17일 담양군 여성회관에서 회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임채완 교수(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의 '한국 여성의 정치 세력화'란 주제 강연을 통해 여성 스스로의 인식전환과 정치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여성의 참다운 민주주의식 함양과 여성 인재양성 및 건전한 정치 참여를 유도했다.



자전거 타기 생활화 안전교육과 캠페인

도지부

20일 광양중학교에서 학생과 회원

4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전거 타기 생활화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임재 경감(광양경찰서 읍내지구대장)을 강사로 초빙해 도로에서 안전한 자전거 운행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안전장비 착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후 학교 정문 앞에서 50여명이 에너지절약을 위한 자전거타기 홍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가두 캠페인을 펼치며 홍보물을 배포하며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했다.

성매매 실태 바로알기 교육 및 캠페인

도지부

6월 28일 순천시 문예회관 강당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매매 실태 바로알기 교육과 캠페인이 있었다. 왜곡된 성문화 의식을 개선하고 성매매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최근 동향을 파악하고, 성매매 방지 및 건강한 사회 만들기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건강한 숲 만들기」교육

목포시지회

지난 6월 16일 동명동 문화의 집에 회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숲은 우리의 생명이며, 맑은 물이 건강의 원리'란 주제로 숲과 자연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그 실천방법으로 음식물 문화

개선을 통한 환경보호의식 확산을 강조한 「건강한 숲 만들기 교육」을 실시했다.

「행복한 만남」-새로운 삶을 가꾸자 순천시지회

15일 순천조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회원 150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만남'이란 주제강연이 있었다. 남편과 아이들을 위한 주부로서의 삶과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찾아보는 시간이었다.

청소년 성교육, 「성, 알수록 성스럽다」

광양시지회

광양중학교 학생 4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0일 청소년 성교육을 실시했다.

박찬 수필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자칫 왜곡된 성문화를 접하고, 잘못된 성 개념을 가지기 쉬운 청소년들에게 「성, 알수록 성스럽다」라는 주제로 올바른 성 개념을 통해 바람직한 성 문화



정착을 유도했다.

경상북도지부

자연보호 캠페인

포항시지회, 고령군지회

포항시지회는 6월 1일 회원 전원이 신평 마복 계곡을 찾아가 자연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 계곡 주변의 아름다운 봄 산마쓰레기 줍기 등 자연보호 활동을 전개하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느꼈다.

고령군지회는 17일, 24일에 운수면 얼음골 유락시설을 찾아가 행락철을 맞아 방문객들로 인해 훼손된 자연을 되살리고 보호하기 위한 자연정화운동을 전개했다.



「2005년 농촌사랑 그린교실」참여 구미시지회

6월 1일~7월 20일(8주과정)까지 농촌지도소에서 구미시가 주관하는 '농촌사랑 그린교실'이 있었다. 회원 5명

이 참여해 원예실습, 꽃가꾸기, 천연염색 수업을 통해 농촌사랑실천과 더불어 자질향상에 힘썼다.

현충원 참배

김천시지회

6월 23일 여성단체협의회 주관하는 현충원 참배에 회원들이 참석해 6·25 미망인과 수호자 및 방문자들의 안내도우미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상주시지회

6월 25일~26일 이틀간 회원들이 2개 조로 나누어 하주 이서리에 위치한 포도농원을 방문해 포도 봉지 씌우기와 포도알 솟구기 등 바쁜 일손을 도왔다.

릴레이식 봉사활동

영주시지회, 영천시지회, 칠곡군지회

영주시지회는 6월 6일 현충일 기념행사가 치러진 충혼탑에서 방문객들에게 음료 봉사활동을 했고, 15일에는 회원 8명이 만남의 집을 방문하여 식사제공 및 배식 봉사활동을 했으며, 17일에는 인애가 장수마을을 방문해 목욕과 청소 및 배식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영천시지회는 6월 28일 고경드림랜드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마

련된 '장애인 드림랜드 나들이' 행사에 회원 전원이 참석해 음식제공 및 안내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칠곡군지회는 17일 왜관역 근처에 위치한 무료급식소에 돼지고기를 제공하고 배식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불우이웃돕기

군위군지회

6월 30일 군위군청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주관 단체별 헌옷 수거 판매행사에 참여해 그 판매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경상남도지부

제25기 주부대학 및 제 11기 부부대학 개강

도지부

주부대학과 부부대학이 6월 1일 주부교실 강당에서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강식을 가졌다. 6월 1일~9월 28일(매주 화요일)까지 진행



될 이번 주부대학은 정치, 경제, 우리 국악의 이해와 감상 등의 교육내용으로 진행되고, 부부대학에서는 부부의 역할 존중과 향기 있는 가정 가꾸기 등을 주제로 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친환경축산물 소비촉진 가두 캠페인 및 우수농사 견학

도지부

6월 20일 회원 50명이 마산역 주변에서 축산물소비촉진 및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가두 캠페인을 전개했다. 23일에는 회원 45명이 산청군 산청읍 병정리 내수부락에 위치한 친환경축산 우수 농가를 방문해 현장 견학을 통해 친환경축산물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었고, 직거래를 통한 좋은 품질의 축산물을 구입하면서 축산물 소비촉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자연정화운동

밀양시지회

6월 5일 회원 40명이 금천리 강언덕 유원지 일대에서 고철, 병 등 재활용

쓰레기를 수집하고, 깨끗한 환경과 맑은 물 보존을 위한 자연보호운동을 전개했다.



부자가정 밀반찬 지원

창원시지회

창원시지회는 매월 첫째주 목요일 부자가정 밀반찬 지원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창원시에 부자가정으로 등록된 3가정을 회원 10여명이 방문해 정성스럽게 만든 밀반찬을 전달하고 집안일을 도와주었다.



선지견학 및 월례회

창원시지회

6월 8일 회원 30여명이 역사탐방 프로그램 일환으로 운문사와 석남사를

찾는 선지견학을 마친 후 6월 월례회를 가졌다.



노인무료급식소 봉사활동

창원시지회

6월 9일 회원 10명이 소담동에 위치한 (사)참사랑봉사회 무료급식소를 방문해 음식준비 보조와 배식 및 설거지 봉사활동을 전개하면서 매달 2번째 목요일 참자원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실시하기로 약속했다.



제주도지부

공공요금 조사사업

도지부

지난 6월 1일~4일까지 제주도내 5개 지자체 해당요금 담당과를 방문해 물가감시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 8개 부분에 대한 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물가감시모니터들이 해당지자체 담당과를 직접 방문하여 쓰레기봉투료, 상·하수도요금, 정화조 청소요금, 시내버스요금 등 공공요금가격 실태를 파악해 가격의 효율성과 합리적 책정 여부를 조사하였다.

친환경농장 견학

도지부

6월 25일 우리농산물의 안전성 및 우수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신뢰성 확보 및 소비촉진 유도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농장을 견학하였다.

북제주군 봉성리에 위치한 금산농장을 회원 200여명이 찾아가 과일과 채소 등의 친환경 유기농재배 과정을 직접 보면서 유기농법에 관한 지식 습득으로 유기농제품을 신뢰할 수 있었다. 또한 땅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에너지절약교육 및 캠페인

서귀포시지회

지난 13일 여성회관에서 회원 50명을 대상으로 '생활 속의 에너지절약 실천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에너지관리

공단 제주지사 장성규 부장을 강사로 초빙해 에너지절약 실천방법을 모색한 후, 서귀포 시내에서 하절기 에너지절약 가두 캠페인을 전개했다.

천연염색 체험학습

남원읍분회

지난 6월 23일 제주랜드에서 회원 30명을 대상으로 양파물, 녹차, 양배추, 감귤잎 등의 천연재료를 이용한 스카프 염색법 체험을 통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 수 있었다.

* 동정란 *

박영희 회장(광주광역시지부) 여성가족부장관상 수상

여성가족부가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양성평등 촉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1995년부터 지정한 1주간(매해 7월1일~7월7일)을 「여성주간」이라고 한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는 매년 여성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7월 7일 코엑스 오디토리움 3층에서 "행복한 가족, 대한민국의 힘입니다"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10회 여성주간」행사에 광주광역시지부 박영희 회장이 양성평등에 기여한 유공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주부교실게시판

주부대학 · 주부대학원 방학

본회(중앙회)가 주부들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6개월 과정의 주부대학과 1년 과정의 주부대학원이 다음과 같이 여름방학에 들어간다. 그 외 조직인 등산반과 합창단 방학도 다음과 같다.

- 주부대학 : 방학기간 - 05. 7. 28~8. 28
개 강 일 - 05. 8. 29(월요일) 10:30
- 주부대학원 : 방학기간 - 05. 7. 22~8. 30
개 강 일 - 05. 9. 1(목요일) 10:30
- 등산반 : 05. 7. 21~8. 30
- 합창단 : 05. 7. 26~8. 28

소비생활에서 입은 피해 상담 및 구제

본회는 소비자들의 권익향상과 피해구제를 위해 전국 48개 지역에 소비자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해 소비자들의 사례들을 접수 받고 있다.

- 전화 : (02)2273-2485, 6300, (02)2265-5870
- FAX : (02)2279-9341
- E-mail : nchc01@chol.com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5가 19-3(100-015)

광진여성인력개발센터 8월 프로그램 안내

본회가 여성적합직종개발 및 훈련으로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잠재된 직업 적

성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광진구 소재)에서 다음과 같은 강좌를 새롭게 운영한다.

- 홈페이지 : www.vocation.or.kr
- 문의 : 3409-1948~9

<특강>

프로그램	개강일	기간	시 간	수 강 료
퀵트 무료강습	8. 23	1일	화 15:00~16:00	무료
포토샵	8. 25	1일	목 10:00~12:00	5천원(디카 준비)
어린이구연동화	8. 18	1일	목 17:00~18:40	3천원(간식비 포함)
어린이 포토샵과정	8. 9	2주	월,수,금 15:00~16:00	3만원(교재비 별도)
발맷사지	8. 19	1일	금 10:00~12:00	5천원(재료비 별도)

<일반프로그램>

프로그램	개강일	기 간	시 간	수 강 료
재직자 수강 지원금프로그램 (재직자/고용보험가입자: 환급80~100%)				
패턴메이킹 및 의류제작	8. 24	8. 24~9. 30	월, 수, 금 (19:00~22:00)	23만원 (환급 80%)
한식조리사	8. 24	8. 24~9. 30	월, 수, 금 (19:00~22:00)	30만원 (환급 80%)
정보화기초	8. 23	8. 23~9. 29	화, 목 (19:20~21:50)	12만원 (환급 100%)
단기직종프로그램				
간병인	8. 16	8. 16~8. 27	월~금 (14:30~18:30)	5만5천원 (교재비 5천원)
베이비시터	8. 22	8. 22~9. 2	월~금 (9:30~13:30)	5만5천원 (교재비 포함)
사회문화교육				
엑셀과정 (예비접수가능)	8. 22	8. 22~10. 10	월, 수, 금 (14:00~16:00)	무료
손뜨개강좌 (예비접수중)	9. 8	9. 8~11. 10	목 (10:00~14:00)	무료
컴퓨터교실				
인터넷기초반	8. 16	3주	월, 수, 금 (15:00~17:00)	3만원 (교재비 별도)
한글2002 2차	8. 29	2주	월, 수, 금 (10:00~12:00)	2만원 (교재비 별도)